

---

2018년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

2018. 12.

**KBIZ** 중소기업중앙회

# 목 차

I. 조사개요 .....	1
II. 조사결과 요약 .....	3
III. 조사결과 분석 .....	16
1.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전망 .....	16
2. 외부자금 조달 .....	24
3. 약속어음 및 현금성 결제 .....	37
4. 기준금리 인상 .....	51
5. 관계형금융 .....	57
6. 기타 금융과제 건의 .....	59
IV. 통계표 .....	61

<부록> 조사표

# I | 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실태 및 자금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 조사 개요

조사 대상	300개 중소기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fax, e-mail, 전화조사 병행
조사 기간	2018. 11. 12 ~ 12. 07
조사 기관	네오데이터월드

## 3. 조사 내용

업체 현황	·업체 기본정보(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지역 / 종사자수 / 업종 / 매출액
최근 자금 사정 및 자금수요 전망	·올해 자금 사정 및 곤란한 이유 ·내년 자금수요 전망 및 긍정적인 이유
외부자금 조달	·외부자금 조달 경험 ·은행이용 현황 ·정책자금 이용현황
약속어음 및 현금성결제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관련 의견 ·구 판매대금 현금성결제 이용현황 및 관련 의견 ·결제 수단별 수취기일/지급기일/결제기일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관련 의견
관계형 금융	·관계형금융 이용 경험 ·만족 불만족 이유 / 이용하지 않는 이유
기타 금융과제 건의	·금융지원 과제,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 4. 응답업체 현황

구 분		응답업체수(개)	구성비(%)
기업규모별1)	소 기 업	208	69.3
	중 기 업	92	30.7
업종형태	제 조 업	225	75.0
	건 설 업	15	5.0
	서 비 스 업	60	20.0
지역	수도권	90	30.0
	비수도권	210	70.0
매출규모	100억 미만	105	35.0
	100억~300억 미만	110	36.7
	300억 이상	85	28.3
전 체		300	100.0

주 : 1) 소기업은 종업원 수 5~49인, 중기업은 50인 이상

#### 5. 이용 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응답업체 현황 중 업종형태별 구분의 건설업의 경우 수가 적어 통계활용에 한계
- 문6번. 대출조건별 은행차입 대출금 비중,  
문9번.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문12-1번.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등의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가 저조하여 통계활용에 한계

## II 조사 결과 요약

### part1.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전망

#### 1. 중소기업 자금사정과 악화 원인

- ▷ 금년 자금사정(2017년 대비)에 대해 조사업체의 22.3%가 “곤란”으로 응답하였으며, “원활”은 22.0%로 나타남. 자금사정 “곤란” 비중은 지난해(25.0%)에 비해 감소(2.7%p)했으며, “원활”은 증가함(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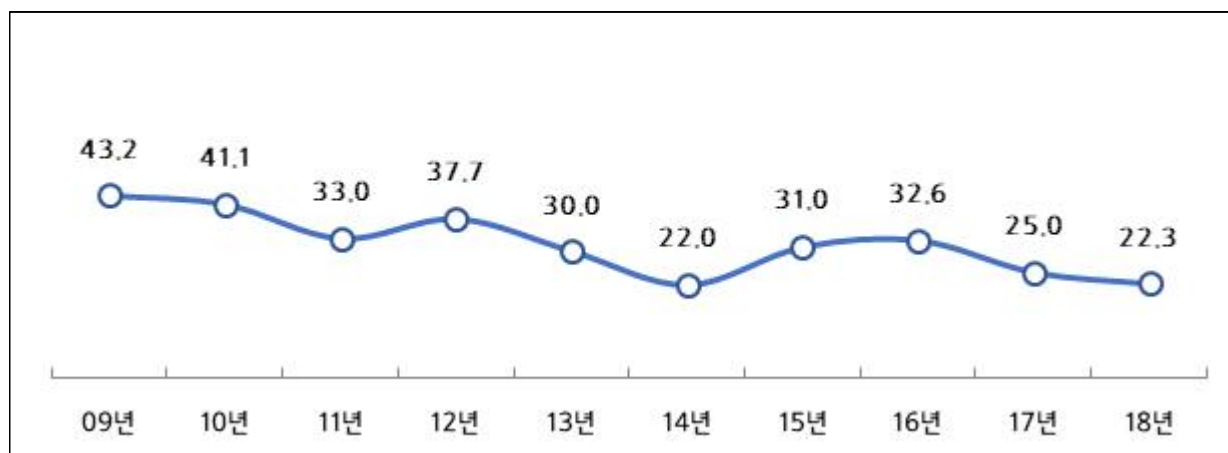
중소기업 자금사정(2017년 대비)

(단위 : %)

구 분	매우 원활	원활	전년과 비슷	곤란(악화)	매우 곤란(악화)
2018년(A)	0.3	21.7	55.7	20.0	2.3
2017년(B)	1.3	18.7	55.0	22.3	2.7
증감(A-B, %p)	-1.0	3.0	0.7	-2.3	-0.4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악화)” 10년간 추이

(단위 : %)



- ▷ 자금사정이 곤란한 기업의(조사업체의 22.3%) 곤란한 원인으로서는 “판매 부진”이 6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40.3%), “인건비 상승”(3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한 원인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판매 부진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판매대금 회수지연	납품대금 가격동결 또는인하	거래처 구조조정 또는부도	설비기술 투자확대	금융기관 자금조달곤 란	기타
2018년	67.2	40.3	38.8	19.4	7.5	7.5	1.5	1.5	3.0
2017년	62.7	54.7	17.3	30.7	-	4.0	1.3	6.7	2.7
증감(A-B, %p)	4.5	-14.4	21.5	-11.3	7.5	3.5	0.2	-5.2	0.3

2.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 및 증가 이유

- ▷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 조사업체의 19.0%가 “감소”로 응답하였으며, “증가”는 8.6%로 나타남.
- 자금사정 “감소” 비중은 지난해(17.0%)에 비해 증가(2.0%p)했으며, “증가”는 감소함(-7.4%p)

내년도 중소기업 자금수요 전망(2017년 결과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증가	다소 증가	올해 수준유지	다소 감소	매우 감소
2018년(A)	0.3	8.3	72.3	18.0	1.0
2017년(B)	0.3	15.7	67.0	16.0	1.0
증감(A-B, %p)	0.0	-7.4	5.3	2.0	0.0

- ▷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로 “인건비 지급”이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부자재 구입”(38.5%), “설비투자” (2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설비투자	부채상환	현금결제 확대 (어음축소)	기타
2018년	38.5	38.5	26.9	7.7	7.7	3.8
2017년	27.1	27.1	29.2	6.3	-	1.9
증감(A-B, %p)	11.4	11.4	-2.3	1.4	7.7	1.9

## part2. 외부자금 조달

### 3. 외부자금 이용 경험

- ▷ 외부자금 이용 경험에 대해 “이용경험 있음”은 31.0%로 “이용경험 없음” 69.0%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외부자금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2018년	31.0	69.0
2017년	44.0	56.0
증감(A-B, %p)	-13.0	13.0

#### 4. 필요 자금 대비 확보한 외부자금 정도

▷ 중소기업의 26.9%는 금년 필요자금 대비 확보한 외부자금이 “91% 이상”이라고 응답함. 필요자금의 “71~90%” 확보되었다는 응답이 21.5%, “51~70%” 응답은 29.0%로 나타남.

◆ 50%를 초과하여 자금을 확보한 업체가 77.4%로 전년 대비 4.3%p 감소함

##### 필요 자금 대비 확보한 외부자금 정도

(단위 : %)

구 분	0~30%	31~50%	51~70%	71~90%	91% 이상
2018년	8.6	14.0	29.0	21.5	26.9
2017년	8.3	10.0	20.0	29.7	32.0
증감(A-B, %p)	0.3	4.0	9.0	-8.2	-5.1

#### 5. 작년(2017년) 대비 금년도(2018년) 외부자금조달 사정

▷ 작년 대비 금년도 외부자금조달 사정에 대해 조사업체의 19.4%가 “악화”로 응답하였으며, “호전”은 15.1%로 나타남

##### 작년(2017년) 대비 금년도(2018년) 외부자금조달 사정

(단위 : %)

매우호전	다소호전	지난해와 비슷	다소악화	매우악화
0.0	15.1	65.6	19.4	0.0



## 6. 대출조건별 은행차입 대출금 비중

- ▷ 대출 조건별 은행 차입 대출금 비중으로는 “부동산담보”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신용” 32.6%, “신용보증서”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출조건별 은행차입 대출금 비중

(단위 : %)

구 분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예/적금 등 담보	연대보증	은행지급 보증
2018년	49.2	15.1	32.6	1.3	1.8	0.0
2017년	41.2	19.3	35.2	2.5	1.0	0.8
증감(A-B, %p)	8.0	-4.2	-2.6	-1.2	0.8	-0.8

## 7.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때 애로사항에 대해 “높은 대출금리”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한도 부족” 21.8%,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12.8%, “부동산 담보 부족” 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

높은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족	과도한 서류제출요구	부동산 담보 부족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심사	예/적금, 보험등 가입요구	없음
26.9	21.8	12.8	7.7	7.7	1.3	46.2

## 8. 금년도 정책자금 신청 경험

- ▷ 금년도 정책자금 신청 경험으로는 신청경험이 “있고 지원 받았음”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고, 내년에도 계획 없음” 41.9%, “없으나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신청 경험

(단위 : %)

구 분	있고, 지원받았음	있었으나, 지원받았음	없으나, 내년에신청할계획	없고, 내년에도계획없음
2018년	45.2	2.2	10.8	41.9
2017년	11.3	0.7	6.7	77.7
증감(A-B, %p)	33.9	1.5	4.1	-35.8

※ 응답자 Base 변동 : (17년) 응답자 전체 → (18년) 금년도 외부자금 이용경험 있는 응답자

##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금액에 비해 지원 한도 부족”(20.5%), “엄격한 지원 대상 요건”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필요금액에 비해 지원 한도 부족	엄격한 지원 대상요건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담보 및 보증요구	없음
36.4	20.5	20.5	9.1	2.3	34.1

## part3. 약속어음 및 현금성 결제

### 10.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여부

- ▷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는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여부

(단위 : %)

찬성	반대	잘모름
48.7	12.0	39.3

### 11. 약속어음 폐지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정책적 대안

- ▷ 약속어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위축 해소 위한 정책자금 공급”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속어음 발행액 축소 기업 세제혜택 부여” 36.3%,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위한 정부 예산 확대 편성” 34.3%,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약속어음 폐지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정책적 대안

(중복응답, 단위 : %)

신용위축 해소 위한 정책자금 공급	약속어음 발행액 축소기업 세제혜택 부여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위한 정부예산 확대편성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대중견기업에 우선적 약속어음 발행 금지시행	기타
41.0	36.3	34.3	33.3	15.7	1.0

## 12.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 ▷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는 “외상매출채권”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구매 자금대출” 8.0%, “기업구매 전용카드” (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 자금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지급경험 없음
2018년	12.7	8.0	2.3	1.3	0.3	80.3
2017년	44.4	33.3	33.3	11.1	-	-
증감(A-B, %p)	-31.7	-25.3	-31.0	-9.8	0.3	80.3

※ “지급경험 없음” 항목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2017년 자료와 직접적 비교 불가

### 12-1. 구매대금 지급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 ▷ 구매대금 결제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기업 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가 단축될 때 적절한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60일 이하”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일 이하” 36.8%, “현행 유지(180일)”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매대금 지급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단위 : %)

60일 이하	90일 이하	120일 이하	150일 이하	현행 유지(180일)
52.6	36.8	0.0	0.0	10.5

### 13. 수취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 ▷ 수취경험이 있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는 “외상매출채권”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구매 자금대출” 7.0%, “기업구매 전용카드” 4.7%, “구매론” 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취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단위 : %)

구 분	외상 매출채권	기업구매 자금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상생결제 시스템	수취경험 없음
2018년	25.0	7.0	4.7	2.7	1.0	0.7	70.0
2017년	55.6	22.2	55.6	16.7	5.6	5.6	-
증감(A-B, %p)	-30.6	-15.2	-50.9	-14.0	-4.6	-4.9	70.0

※ “수취경험 없음” 항목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2017년 자료와 직접적 비교 불가

#### 13-1. 판매대금 수취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 ▷ 판매대금 결제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기업 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가 단축될 때 적절한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60일 이하”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일 이하” 18.7%, “120일” 4.0%, “현행 유지(180일)” 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판매대금 수취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단위 : %)

60일 이하	90일 이하	120일 이하	150일 이하	현행 유지(180일)
70.7	18.7	4.0	2.7	4.0

## 14-1. 판매대금 수취기일 및 결제기일

- ▷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기업의 평균 수취기일은 35.1일로 나타남. “현금성결제”의 평균 수취기일은 54.6일, 결제기일은 58.2일로 조사됨. “어음”의 경우 평균 수취기일 47.7일, 결제기일 69.3일로 나타남

### 판매대금 수취기일 및 결제기일

(단위 : 일)

구 분	현금	현금성 결제수단		어음	
	수취기일	수취기일	결제기일	수취기일	결제기일
2018년	35.1	54.6	58.2	47.7	69.3
2017년	40.2	37.3	46.2	52.4	84.6
증감(A-B, 일)	-5.1	17.3	12.0	-4.7	-15.3

## 14-2. 구매대금 지급기일 및 결제기일

- ▷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준 기업의 평균 지급기일은 34.7일로 나타남. “현금성결제”의 평균 지급기일은 53.2일, 결제기일은 57.7일로 조사됨. “어음”의 경우 평균 지급기일은 50.5일, 결제기일은 65.9일로 나타남

### 구매대금 지급기일 및 결제기일

(단위 : 일)

구 분	현금	현금성 결제수단		어음	
	지급기일	지급기일	결제기일	지급기일	결제기일
2018년	34.7	53.2	57.7	50.5	65.9
2017년	35.3	44.4	45.0	54.4	78.4
증감(A-B, %p)	-0.6	8.8	12.7	-3.9	-12.5

## part4. 기준금리 인상

### 15. 기준금리 인상시 경영부담 정도

- ▷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시 기업경영에 부담되는 정도에 대해 “다소 부담됨”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부담됨”(20.0%), “별로 부담 되지 않음”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준금리 인상시 경영부담 정도

(단위 : %)

매우 부담됨	다소 부담됨	별로부담 되지않음	전혀부담 되지않음
20.0	61.7	17.0	1.3

### 16.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경영 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금성 자산 등 유동성 확보”가 30.0%, “신규채용 축소 및 인력감축” 23.0%, “투자계획 연기 또는 축소”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중복응답, 단위 : %)

경영 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	현금성 자산 등 유동성 확보	신규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	투자 계획 연기 또는 축소	정책 자금 이용확대	차입금 상환계획 조정	비은행 금융 기관 대출 이용확대	사채 등 사금융 이용확대	대책 없음
42.0	30.0	23.0	16.7	13.7	10.0	2.3	0.3	14.0

## 17. 기준금리 인상 대비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

- ▷ 기준금리 인상 대비하여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라는 의견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회수 등 은행의 대출형태 모니터링 강화” 15.0%, “대출심사 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평가 확대 유도” 13.7%,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 유도”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준금리 인상 대비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

(단위 : %)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확대	대출회수 등 은행의 대출형태 모니터링 강화	대출심사 시 비 재무적 정보에 대한 평가확대 유도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 유도
57.7	15.0	13.7	13.7

## part5. 관계형금융

### 18. 관계형금융 이용 여부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 ▷ 금년 대출시 관계형금융 이용경험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이용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여 관계형 금융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관계형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복응답, 단위 : %)

관계형금융 제도를 알지 못함	이용조건에 해당 안됨	까다로운 절차	경영정보 공유 과다	기존 대출조건과 차이 없음	기타
88.0	5.3	4.0	1.0	1.0	1.0



## part6. 기타 금융과제 건의

### 19. 기타 금융과제 건의

- ▷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보대출 관행 개선” 34.0%, “경기 불황 시 중금 대출 축소 관행 개선” 27.0%, “장기대출 확대” 27.0%, “은행의 독과점 구조 완화”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금융과제 건의

(중복응답, 단위 : %)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담보 대출 관행 개선	경기 불황 시 중금 대출 축소 관행개선	장기 대출 확대	은행의 독과점 구조 완화	연대 보증 폐지	약속 어음 제도 폐지	예적금 등 가입요구 (꺼기)근절	기타
38.3	34.0	27.0	27.0	15.3	12.0	6.7	6.0	0.7

### III 조사 결과

## part1.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전망

### 1. 중소기업 자금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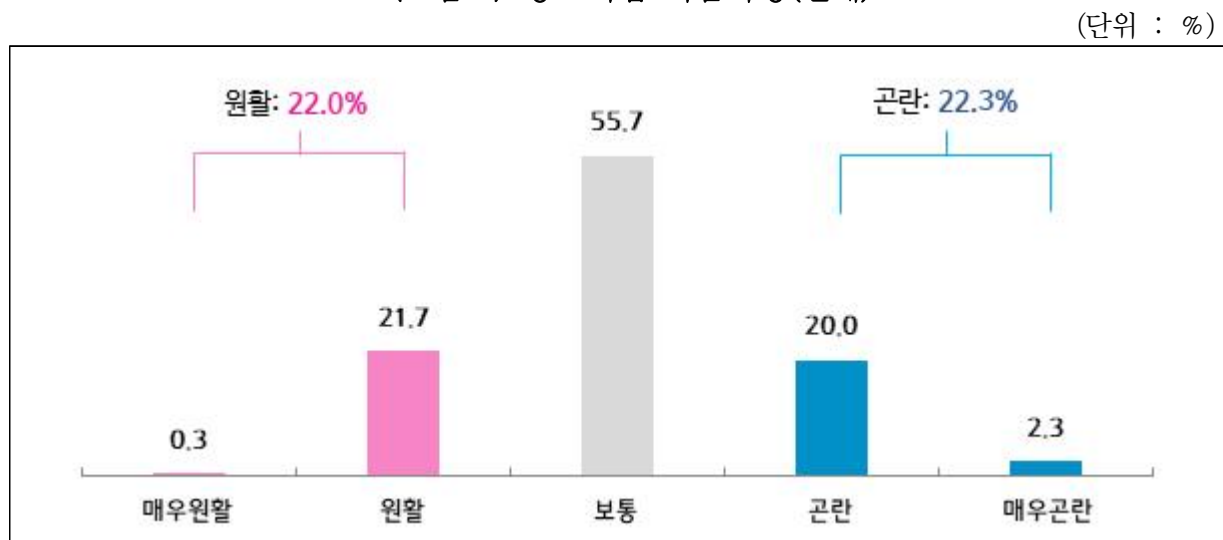
- ▷ 금년 자금사정(2017년 대비)에 대해 조사업체의 22.3%가 “곤란”로 응답하였으며, “원활”은 22.0%로 나타남. 자금사정 “곤란” 비중은 지난해(25.0%)에 비해 감소(2.7%p)했으며, “원활”은 증가함(2.0%p)

〈표 1〉 중소기업 자금사정(2017년 대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매우 원활	원활	전년과 비슷	곤란(악화)	매우 곤란(악화)
2018년(A)	300	0.3	21.7	55.7	20.0	2.3
2017년(B)	300	1.3	18.7	55.0	22.3	2.7
증감(A-B, %p)	-	-1.0	3.0	0.7	-2.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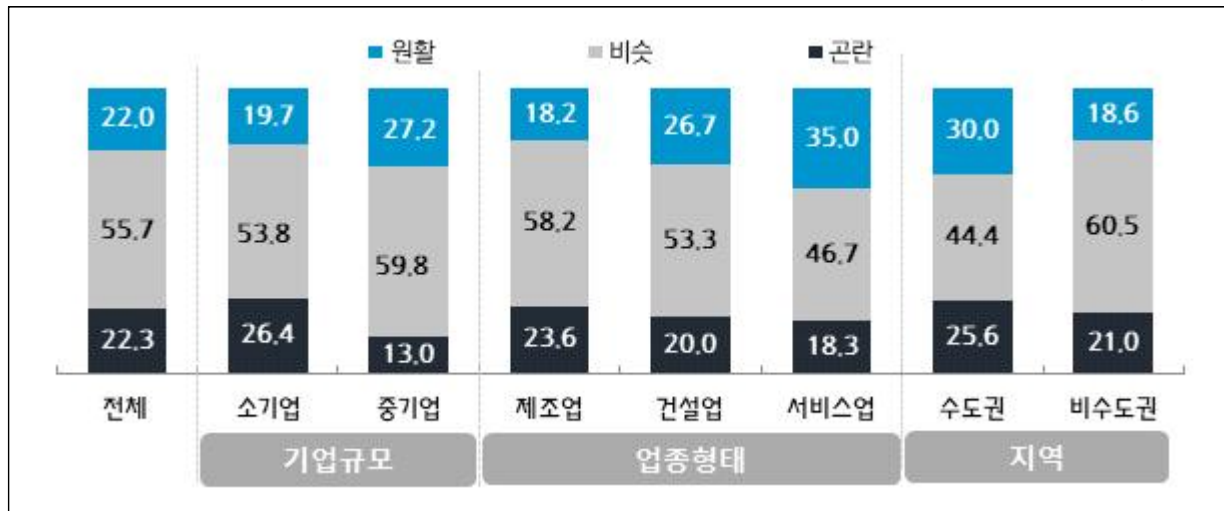
〈그림 1〉 중소기업 자금사정(전체)



-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소기업(19.7%)에 비해 중기업(27.2%)이 원활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로는 서비스업(35.0%)이 건설업(26.7%), 제조업(18.2%)에 비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30.0%)이 비수도권(18.6%)에 비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중소기업 자금사정(세부 항목별)

(단위 :%)



〈표 2〉 중소기업 자금사정 (2017년 대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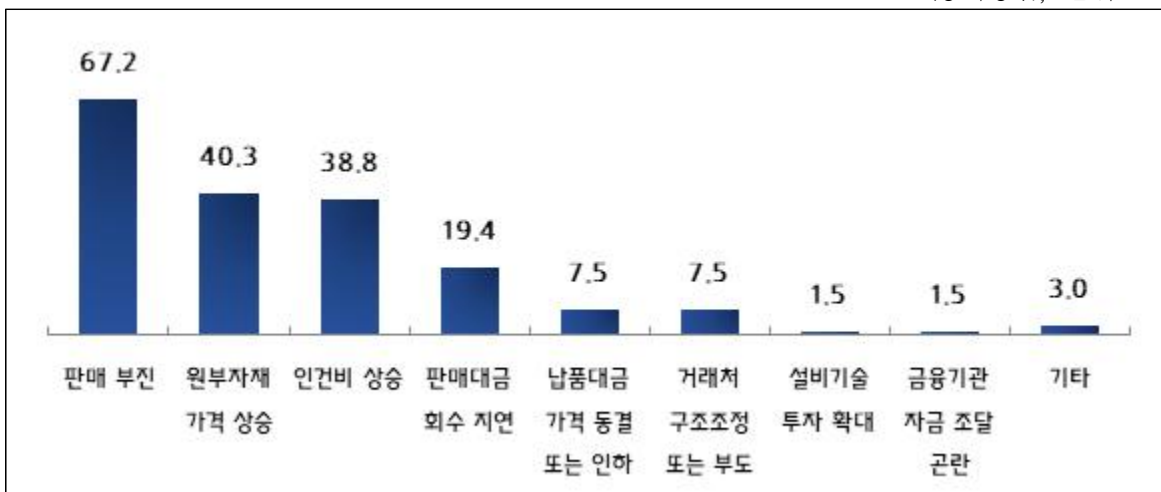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원활	원활	전년과 비슷	곤란	매우 곤란
전체	300	0.3	21.7	55.7	20.0	2.3
2017년	300	1.3	18.7	55.0	22.3	2.7
기업규모						
소기업	208	0.5	19.2	53.8	24.0	2.4
중기업	92	0.0	27.2	59.8	10.9	2.2
업종형태						
제조업	225	0.0	18.2	58.2	20.4	3.1
건설업	15	0.0	26.7	53.3	20.0	0.0
서비스업	60	1.7	33.3	46.7	18.3	0.0
지역						
수도권	90	0.0	30.0	44.4	25.6	0.0
비수도권	210	0.5	18.1	60.5	17.7	3.3

### 1-1.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한 원인

- ▷ 자금사정이 곤란한 기업의(조사업체의 22.3%)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이 6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40.3%), “인건비 상승”(3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한 원인

(중복응답, 단위 :%)



- “판매 부진” 응답비중은 소기업(65.5%)보다 중기업(75.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응답은 소기업(41.8%)이 중기업(33.3%) 보다 높게 조사됨
- 업종형태별 “판매 부진” 응답비중은 제조업(71.7%)이 서비스업(63.6%), 건설업(0.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원부자재 가격상승”은 건설업(66.7%)이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68.2%)이 수도권(65.2%)에 비해 “판매 부진”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부자재 가격상승”은 수도권(56.5%)이 비수도권(31.8%)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 원인

(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판매 부진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판매대금 회수지연	납품대금 가격동결 또는인하	거래처 구조조정 또는부도	설비기술 투자확대	금융기관 자금조달 곤란	기타	
전 체	67	67.2	40.3	38.8	19.4	7.5	7.5	1.5	1.5	3.0	
2017년	75	62.7	54.7	17.3	30.7	-	4.0	1.3	6.7	2.7	
기업 규모	소기업	55	65.5	41.8	36.4	23.6	7.3	9.1	0.0	1.8	1.8
중기업	12	75.0	33.3	50.0	0.0	8.3	0.0	8.3	0.0	8.3	
업종 형태	제조업	53	71.7	37.7	37.7	20.8	7.5	5.7	1.9	1.9	1.9
건설업	3	0.0	66.7	33.3	33.3	0.0	66.7	0.0	0.0	0.0	0.0
서비스업	11	63.6	45.5	45.5	9.1	9.1	0.0	0.0	0.0	9.1	
지역	수도권	23	65.2	56.5	26.1	17.4	8.7	8.7	4.3	0.0	0.0
비수도권	44	68.2	31.8	45.5	20.5	6.8	6.8	0.0	2.3	4.5	

주)응답자 Base : 작년 동기 대비 올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자

\*2017년 조사 때는 '환차손'에 대한 의견이 1.3% 나타남.

## 2.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

- ▷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 조사업체의 19.0%가 “감소”로 응답하였으며, “증가”는 8.6%로 나타남. 자금사정 “감소” 비중은 지난해(17.0%)에 비해 증가(2.0%p)했으며, “증가”는 감소함(-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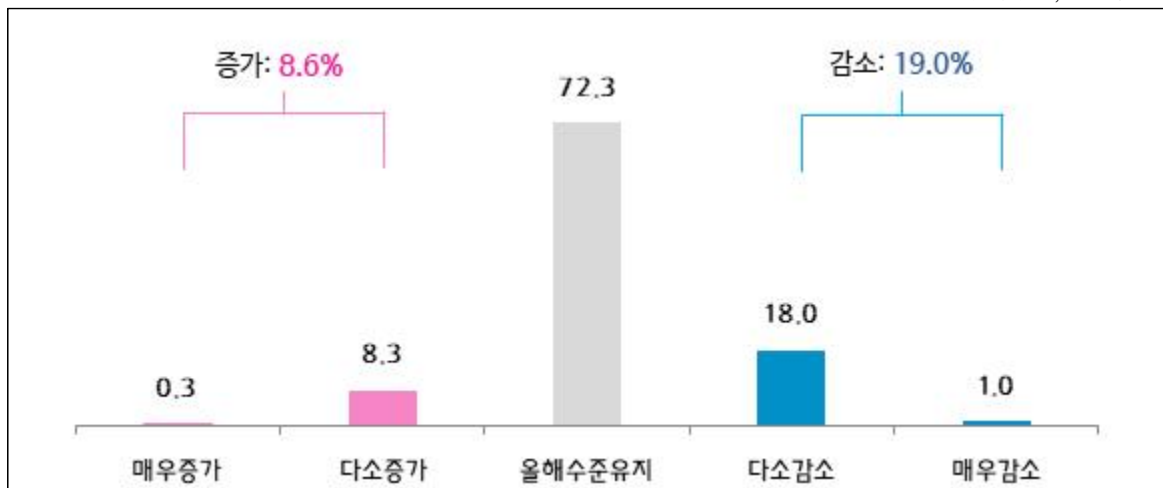
〈표 4〉 내년도 중소기업 자금수요 전망(2017년 결과 비교)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매우 증가	다소 증가	올해 수준유지	다소 감소	매우 감소
2018년(A)	300	0.3	8.3	72.3	18.0	1.0
2017년(B)	300	0.3	15.7	67.0	16.0	1.0
증감(A-B, %p)	-	0.0	-7.4	5.3	2.0	0.0

〈그림 4〉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

(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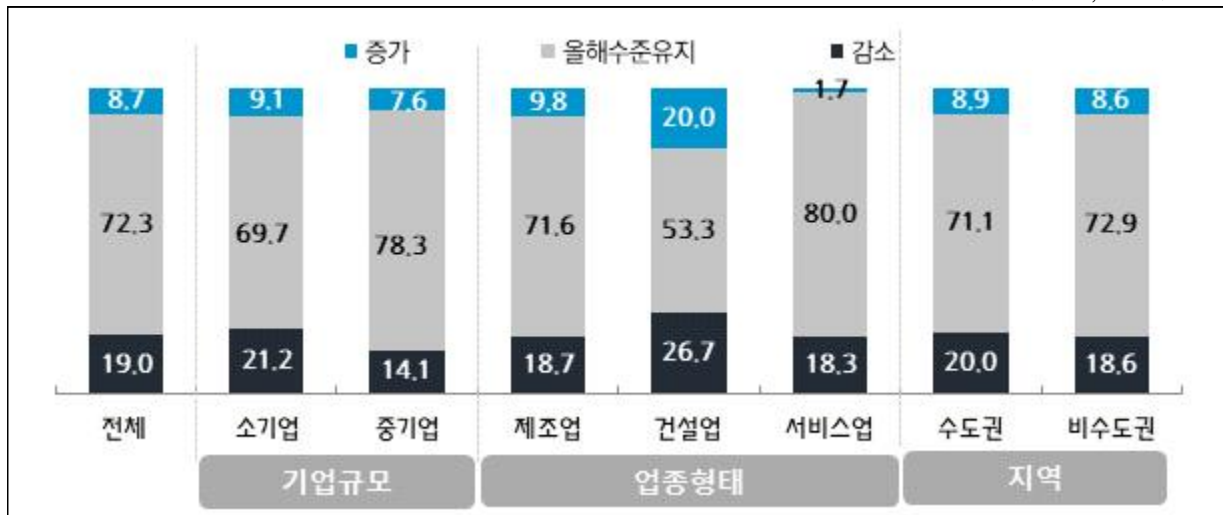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자금수요 전망을 조사한 결과, 소기업(9.1%)이 중기업(7.6%)보다 증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로는 건설업(20.0%)이 제조업(9.8%), 서비스업(1.7%)에 비해 자금수요가 증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8.9%)이 비수도권(8.6%)에 비해 자금수요가 증가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세부 항목별)

(중복응답, 단위 : %)



〈표 5〉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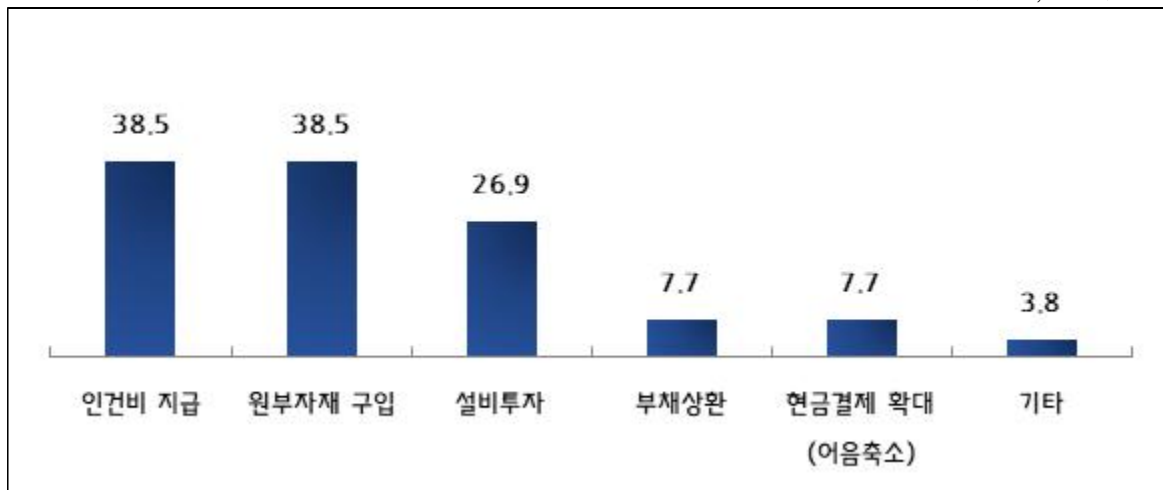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증가	다소 증가	올해 수준유지	다소 감소	매우 감소
전체	300	0.3	8.3	72.3	18.0	1.0
2017년	300	0.3	15.7	67.0	16.0	1.0
기업규모						
소기업	208	0.5	8.7	69.7	20.2	1.0
중기업	92	0.0	7.6	78.3	13.0	1.1
업종형태						
제조업	225	0.4	9.3	71.6	17.8	0.9
건설업	15	0.0	20.0	53.3	26.7	0.0
서비스업	60	0.0	1.7	80.0	16.7	1.7
지역						
수도권	90	0.0	8.9	71.1	20.0	0.0
비수도권	210	0.5	8.1	72.9	17.1	1.4

## 2-1.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

- ▷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로 “인건비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이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설비투자” (2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

(중복응답, 단위 :%)



- “인건비 지급” 응답비중은 소기업(42.1%)이 중기업(2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설비투자” 응답은 중기업(57.1%)이 소기업(15.8%) 보다 높게 조사됨
- 업종형태별 “인건비 지급” 응답비중은 서비스업(100.0%)이 제조업(36.4%), 건설업(33.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현금결제 확대”는 건설업(66.7%)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그 이외의 “원부자재 구입”, “설비투자”, “부채상환”의 경우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인건비 지급” 응답비중은 비수도권(44.4%)이 수도권(25.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설비투자”는 수도권(50.0%)이 비수도권(16.7%)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6〉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사례수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설비투자	부채상환	현금결제 확대 (어음축소)	기타	
전 체	26	38.5	38.5	26.9	7.7	7.7	3.8	
2017년	48	27.1	27.1	29.2	6.3	-	1.9	
기업	소기업	19	42.1	47.4	15.8	10.5	10.5	5.3
규모	중기업	7	28.6	14.3	57.1	0.0	0.0	0.0
업종 형태	제조업	22	36.4	45.5	31.8	9.1	0.0	4.5
	건설업	3	33.3	0.0	0.0	0.0	66.7	0.0
	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지역	수도권	8	25.0	12.5	50.0	0.0	25.0	0.0
	비수도권	18	44.4	50.0	16.7	11.1	0.0	5.6

주) 응답자 Base : 금년 대비 내년도 회사의 자금수요가 증가한다는 응답자

\*2017년 조사 때 자금수요 증가 원인에 대해 '연구기술 개발'의 응답비율이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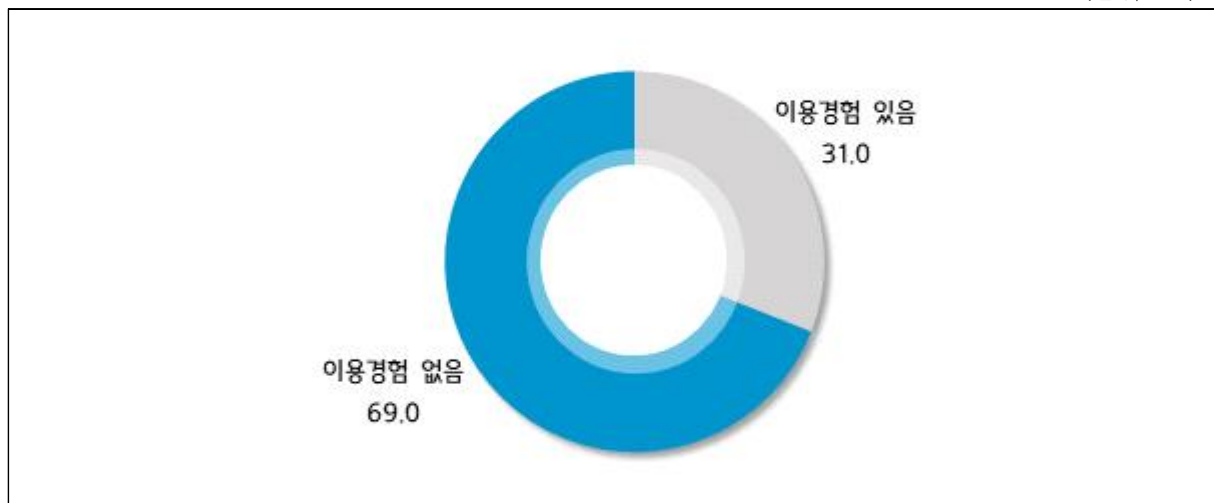
## part2. 외부자금 조달

### 3. 외부자금 이용 경험

- ▷ 외부자금 이용 경험에 대해 “이용경험 있음”은 31.0%로 “이용경험 없음” 69.0%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7〉 외부자금 이용경험

(단위 :%)



- 기업규모별 “이용경험 있음” 응답비중은 소기업(32.2%)이 중기업(28.3%)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이용경험 있음” 응답비중은 제조업(35.6%)이 서비스업(18.3%), 건설업(13.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이용경험 있음” 응답비중은 비수도권(31.4%)이 수도권(3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7〉 외부자금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전 체		300	31.0	69.0
2017년		300	44.0	56.0
기업 규모	소기업	208	32.2	67.8
	중기업	92	28.3	71.7
업종 형태	제조업	225	35.6	64.4
	건설업	15	13.3	86.7
	서비스업	60	18.3	81.7
지역	수도권	90	30.0	70.0
	비수도권	210	31.4	68.6

#### 4. 필요 자금 대비 확보한 외부자금 정도

- ▷ 중소기업의 26.9%는 금년 필요자금 대비 확보한 외부자금이 “91% 이상”이라고 응답함. 필요자금의 “71~90%” 확보되었다는 응답이 21.5%, “51~70%” 응답은 29.0%로 나타남.
  - ◆ 50%를 초과하여 자금을 확보한 업체가 77.4%로 전년 대비 4.3%p 감소함
- 기업규모별 “71~90%” 응답비중은 중기업(23.1%)가 소기업(2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1~70%”는 소기업(32.8%)이 중기업(19.2%)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91% 이상” 응답비중은 제조업(31.3%)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91% 이상” 응답비중은 비수도권(31.8%)이 수도권(1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8〉 필요 자금 대비 확보한 외부자금 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0~30%	31~50%	51~70%	71~90%	91% 이상
전 체	93	8.6	14.0	29.0	21.5	26.9
2017년	132	8.3	10.0	20.0	29.7	32.0
기업 규모						
소기업	67	6.0	13.4	32.8	20.9	26.9
중기업	26	15.4	15.4	19.2	23.1	26.9
업종 형태						
제조업	80	5.0	12.5	26.3	25.0	31.3
건설업	2	0.0	50.0	50.0	0.0	0.0
서비스업	11	36.4	18.2	45.5	0.0	0.0
지역						
수도권	27	11.1	11.1	40.7	22.2	14.8
비수도권	66	7.6	15.2	24.2	21.2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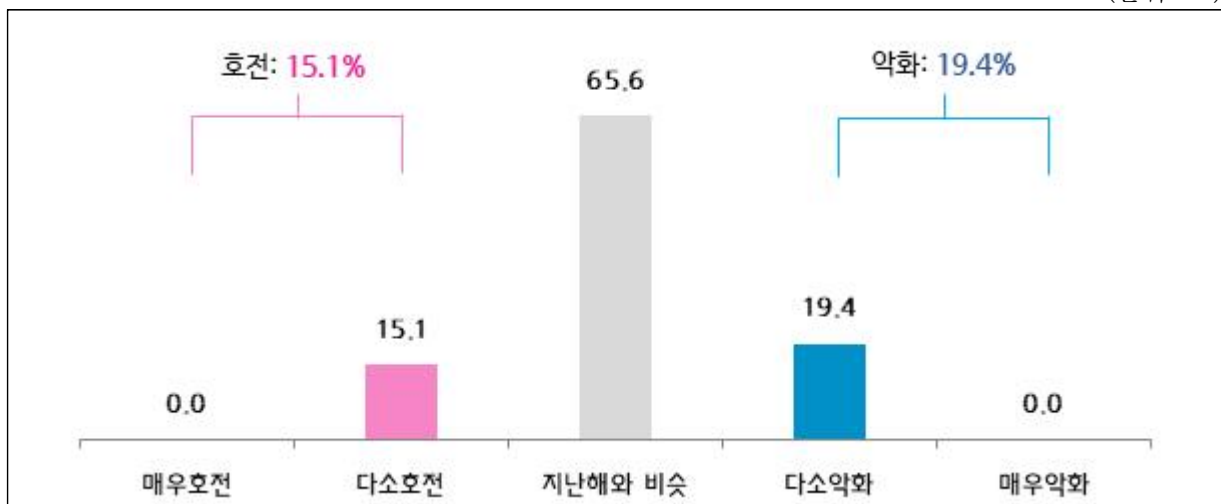
주)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 5. 작년(2017년) 대비 금년도(2018년) 외부자금조달 사정

- ▷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 조사업체의 19.4%가 “악화”로 응답하였으며, “호전”은 1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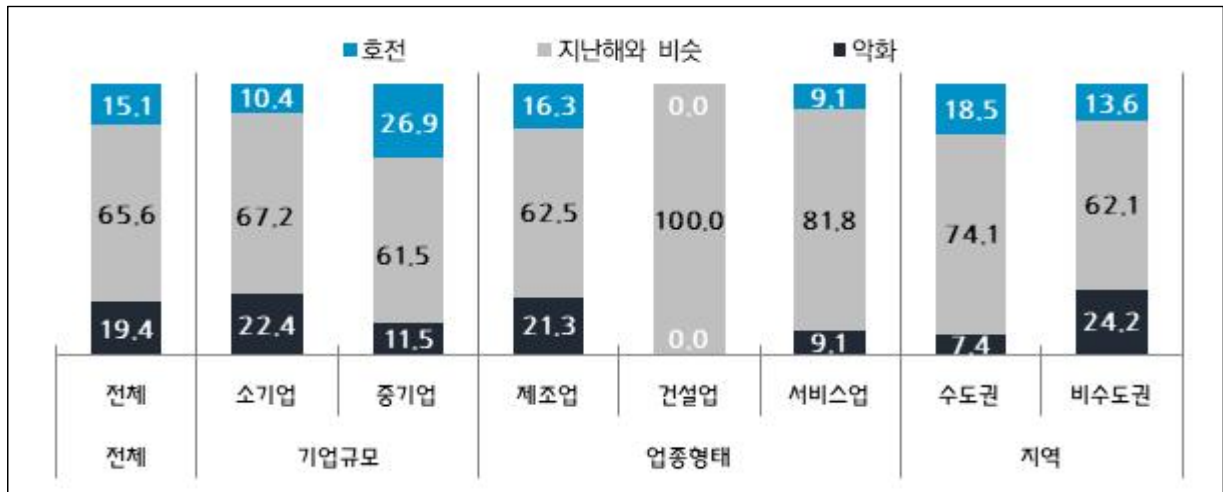
〈그림 8〉 작년(2017년) 대비 금년도(2018년) 외부자금조달 사정

(단위 :%)



- 기업규모별 작년 대비 금년도 외부자금조달 사정을 조사한 결과, 중기업(26.9%)이 소기업(10.4%)보다 호전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로는 제조업(16.3%)이 타 업종에 비해 호전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18.5%)이 비수도권(13.6%)에 비해 호전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9〉 작년(2017년) 대비 금년도(2018년) 외부자금조달 사정(세부 항목별)  
(단위 : %)



〈표 9〉 작년(2017년) 대비 금년도(2018년) 외부자금조달 사정  
(단위 : %)

구분	사례수	매우호전	다소호전	지난해와 비슷	다소악화	매우악화
전체	93	0.0	15.1	65.6	19.4	0.0
기업규모						
소기업	67	0.0	15.1	65.6	19.4	0.0
중기업	26	0.0	10.4	67.2	22.4	0.0
업종형태						
제조업	80	0.0	26.9	61.5	11.5	0.0
건설업	2	0.0	16.3	62.5	21.3	0.0
서비스업	11	0.0	0.0	100.0	0.0	0.0
지역						
수도권	27	0.0	9.1	81.8	9.1	0.0
비수도권	66	0.0	18.5	74.1	7.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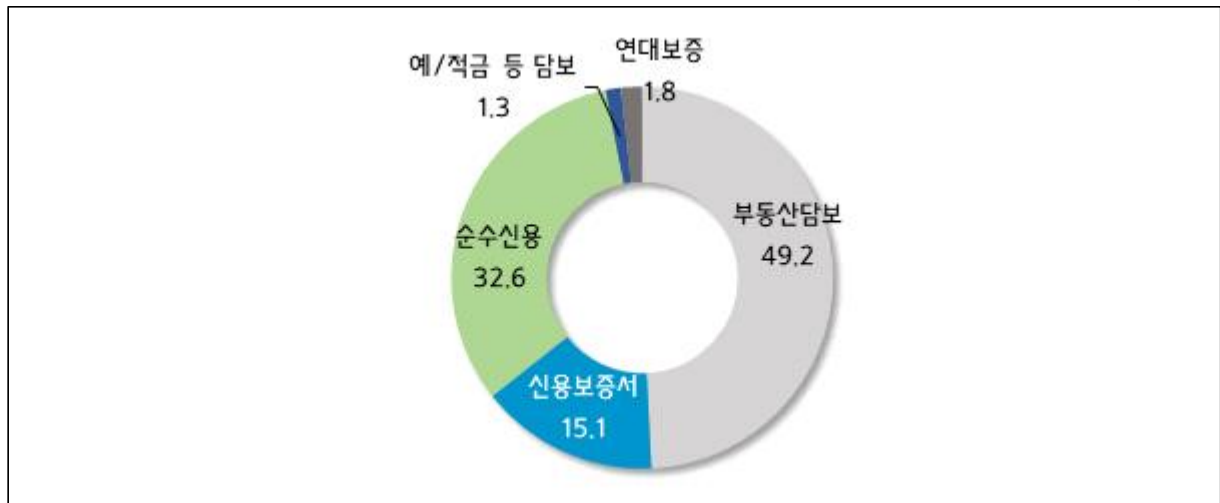
주)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 6. 대출조건별 은행차입 대출금 비중

- ▷ 대출 조건별 은행 차입 대출금 비중으로는 “부동산담보”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신용” 32.6%, “신용보증서”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대출조건별 은행차입 대출금 비중

(단위 :%)



- 기업규모별 “부동산 담보” 응답비중은 중기업(51.4%)이 소기업(48.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부동산 담보” 응답비중은 제조업(50.1%)이 서비스업(43.8%), 건설업(30.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신용”의 경우는 건설업(70.0%)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부동산 담보” 응답비중은 비수도권(52.4%)이 수도권(4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신용”의 경우는 수도권(33.0%)이 비수도권(32.4%)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0〉 대출조건별 은행차입 대출금 비중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예/적금 등 담보	연대보증	은행지급 보증	
전 체	78	49.2	15.1	32.6	1.3	1.8	0.0	
2017년	-	41.2	19.3	35.2	2.5	1.0	0.8	
기업	소기업	56	48.4	15.4	32.7	1.8	1.8	0.0
규모	중기업	22	51.4	14.5	32.3	0.0	1.8	0.0
업종 형태	제조업	69	50.1	14.2	32.2	1.4	2.0	0.0
	건설업	1	30.0	0.0	70.0	0.0	0.0	0.0
	서비스업	8	43.8	25.0	31.3	0.0	0.0	0.0
지역	수도권	23	41.7	20.9	33.0	4.3	0.0	0.0
	비수도권	55	52.4	12.7	32.4	0.0	2.5	0.0

주)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은행차입 대출금이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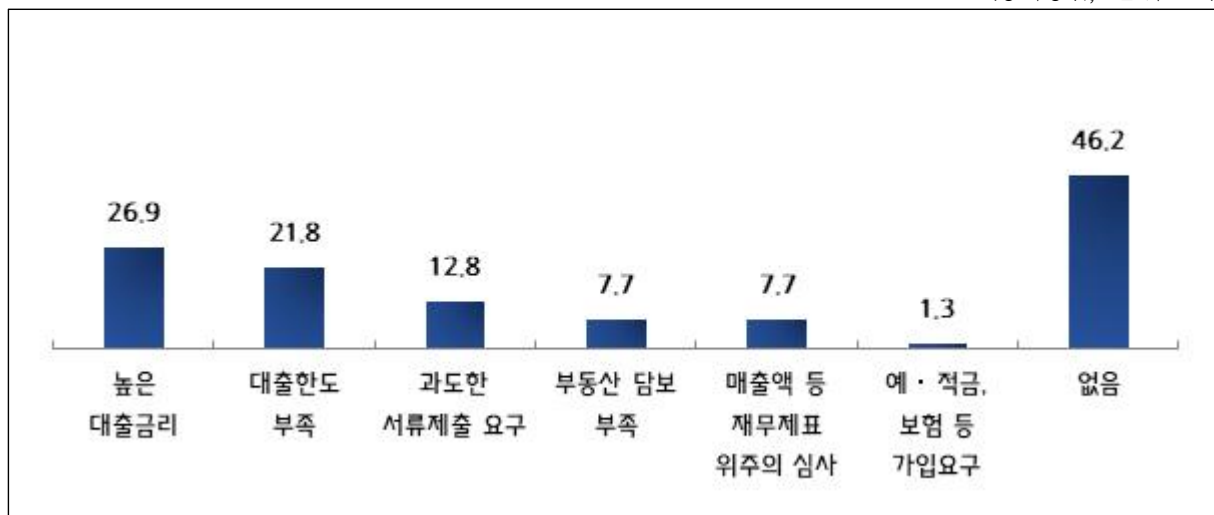


## 7.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때 애로사항에 대해 “높은 대출금리”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한도” 21.8%,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12.8%, “부동산 담보 부족” 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 기업규모별 “높은 대출금리”의 응답비중은 중기업(36.4%)이 소기업(23.2%)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높은 대출금리”의 응답비중은 건설업(100.0%)이 제조업(26.1%), 서비스업(25.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높은 대출금리” 응답비중은 수도권(34.8%)이 비수도권(2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높은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족	과도한 서류제출요 구	부동산 담보 부족	대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심사	예/적금, 보험등 가입요구	없음	
전 체	78	26.9	21.8	12.8	7.7	7.7	1.3	46.2	
기업	소기업	56	23.2	19.6	14.3	8.9	8.9	1.8	48.2
규모	중기업	22	36.4	27.3	9.1	4.5	4.5	0.0	40.9
업종 형태	제조업	69	26.1	21.7	11.6	5.8	5.8	0.0	47.8
	건설업	1	100.0	100.0	0.0	0.0	0.0	0.0	0.0
	서비스업	8	25.0	12.5	25.0	25.0	25.0	12.5	37.5
지역	수도권	23	34.8	34.8	21.7	17.4	8.7	4.3	21.7
	비수도권	55	23.6	16.4	9.1	3.6	7.3	0.0	56.4

주)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은행차입 대출금이 있는 응답자

## 8. 금년도 정책자금 신청 경험

-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정책자금 신청 경험은 “있고 지원 받았음”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고, 내년에도 계획 없음” 41.9%, “없으나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정책자금 신청 경험

(단위 :%)



- 기업규모별 신청경험이 “있고 지원 받았음” 응답비중은 중기업(57.7%)로 소기업(40.3%)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신청경험이 “있고 지원 받았음” 응답비중은 건설업(50.0%)이 제조업(47.5%), 서비스업(2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신청경험이 “있고 지원 받았음” 응답비중은 비수도권(47.0%)이 수도권(4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2〉 정책자금 신청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고, 지원받았음	있었으나, 지원못받음	없으나, 내년에신청할계획	없고, 내년에도계획없음	
전 체	93	45.2	2.2	10.8	41.9	
2017년	-	11.3	0.7	6.7	77.7	
기업	소기업	67	40.3	1.5	10.4	47.8
규모	중기업	26	57.7	3.8	11.5	26.9
업종 형태	제조업	80	47.5	2.5	12.5	37.5
	건설업	2	50.0	0.0	0.0	50.0
	서비스업	11	27.3	0.0	0.0	72.7
지역	수도권	27	40.7	3.7	7.4	48.1
	비수도권	66	47.0	1.5	12.1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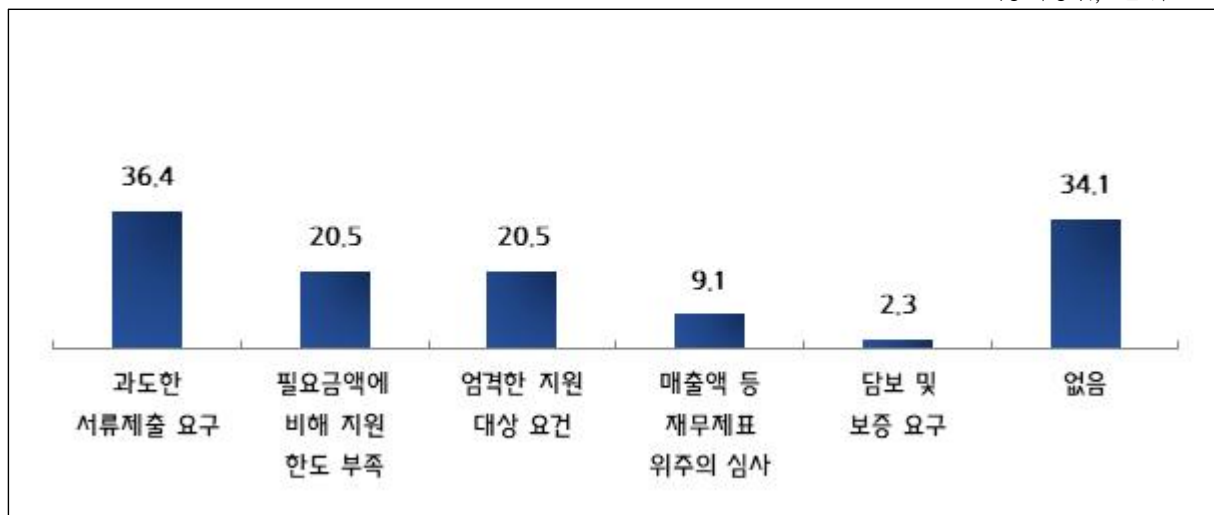
주)응답자 Base 변동 : (17년) 응답자 전체 → (18년) 금년도 외부자금 이용경험 있는 응답자

##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금액에 비해 지원 한도 부족”(20.5%), “엄격한 지원 대상 요건”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으로 기업규모별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응답 비중은 소기업(39.3%)이 중기업(31.3%)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응답비중은 제조업(40.0%)이 서비스업(0.0%), 건설업(0.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응답비중은 수도권(50.0%)이 비수도권(3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3〉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필요금액에 비해 지원 한도 부족	엄격한 지원 대상요건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담보 및 보증요구	없음
전 체	44	36.4	20.5	20.5	9.1	2.3	34.1
기업 규모							
소기업	28	39.3	17.9	25.0	14.3	0.0	28.6
중기업	16	31.3	25.0	12.5	0.0	6.3	43.8
업종 형태							
제조업	40	40.0	22.5	20.0	10.0	2.5	30.0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서비스업	3	0.0	0.0	0.0	0.0	0.0	100.0
지역							
수도권	12	50.0	25.0	33.3	8.3	8.3	16.7
비수도권	32	31.3	18.8	15.6	9.4	0.0	40.6

주)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해본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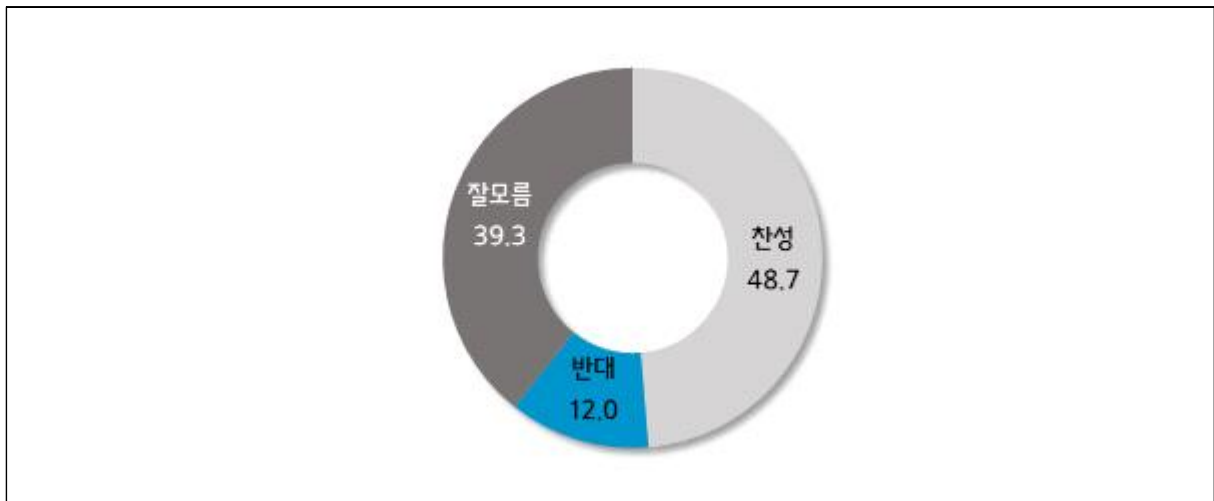
## part3. 약속어음 및 현금성 결제

### 10.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여부

- ▷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48.7%로 가장 나타났으며, “반대”는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여부

(단위 :%)



- 기업규모별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응답비중은 소기업(53.8%)이 중기업(37.0%)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응답비중은 건설업(66.7%)이 제조업(52.4%), 서비스업(30.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응답비중은 비수도권(49.5%)이 수도권(4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4〉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300	48.7	12.0	39.3
기업 규모				
소기업	208	53.8	11.5	34.6
중기업	92	37.0	13.0	50.0
업종 형태				
제조업	225	52.4	12.0	35.6
건설업	15	66.7	20.0	13.3
서비스업	60	30.0	10.0	60.0
지역				
수도권	90	46.7	16.7	36.7
비수도권	210	49.5	10.0	40.5

주)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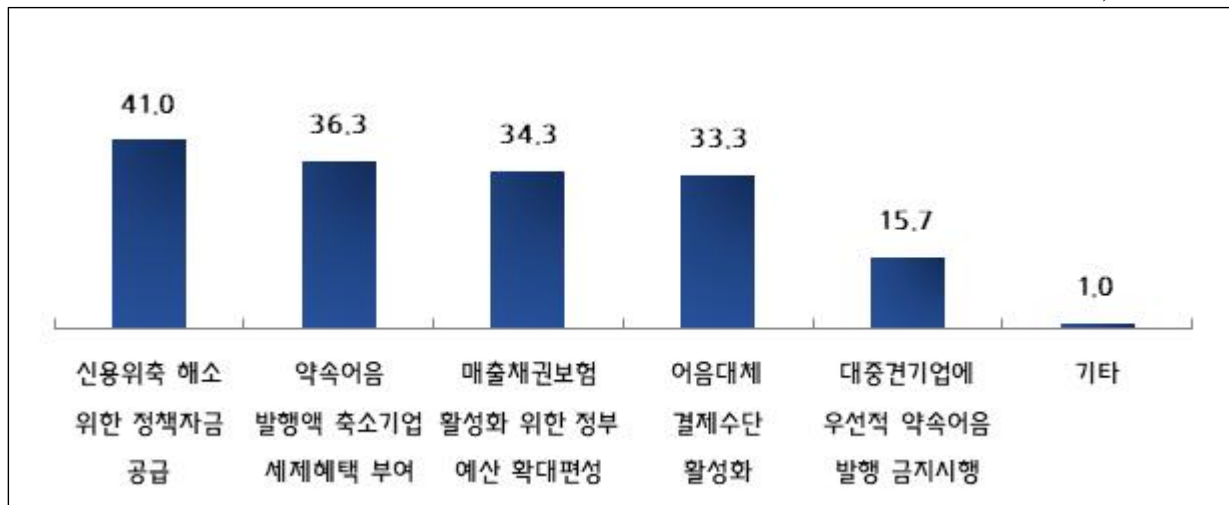


## 11. 약속어음 폐지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정책적 대안

- ▷ 약속어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위축 해소 위한 정책자금 공급”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속어음 발행액 축소 기업 세제혜택 부여” 36.3%,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위한 정부 예산 확대 편성” 34.3%,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약속어음 폐지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정책적 대안

(중복응답, 단위 :%)



- 기업규모별 “신용위축 해소 위한 정책 자금 공급” 응답비중은 소기업(41.8%)이 중기업(39.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위한 정부예산 확대 편성”은 중기업(40.2%)이 소기업(31.7%)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신용위축 해소 위한 정책 자금 공급” 응답비중은 서비스업(48.3%)이 건설업(40.0%), 제조업(39.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약속어음 발행액 축소 기업 세제혜택 부여”의 경우 제조업(41.3%)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신용위축 해소 위한 정책 자금 공급” 응답비중은 수도권(44.4%)이 비수도권(3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5〉 약속어음 폐지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정책적 대안

(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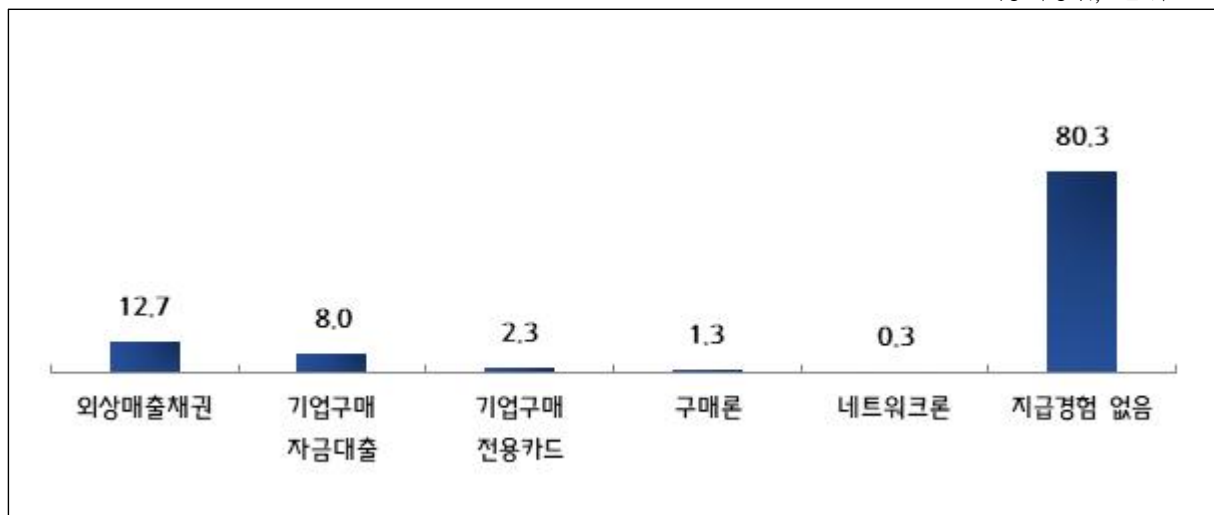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신용위축 해소 위한 정책자금 공급	약속어음 발행액 축소기업 세제혜택 부여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위한 정부예산 확대편성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대중견기업에 우선적 약속어음 발행 금지시행	기타	
전 체	300	41.0	36.3	34.3	33.3	15.7	1.0	
기업	소기업	208	41.8	36.5	31.7	33.7	17.3	1.4
규모	중기업	92	39.1	35.9	40.2	32.6	12.0	0.0
업종 형태	제조업	225	39.1	41.3	37.3	31.1	15.1	1.3
	건설업	15	40.0	20.0	13.3	26.7	26.7	0.0
	서비스업	60	48.3	21.7	28.3	43.3	15.0	0.0
지역	수도권	90	44.4	21.1	33.3	42.2	16.7	1.1
	비수도권	210	39.5	42.9	34.8	29.5	15.2	1.0

## 12.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 ▷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는 “외상매출채권”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구매 자금대출” 8.0%, “기업구매 전용카드” (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중복응답, 단위 :%)



-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중 기업규모별 “외상매출채권” 응답비중은 중기업(18.5%)이 소기업(10.1%)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외상매출채권” 응답비중은 제조업(16.0%)이 건설업(6.7%), 서비스업(1.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구매 전용카드”는 건설업(13.3%)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외상매출채권” 응답비중은 수도권(14.4%)이 비수도권(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6〉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 자금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지급경험 없음
전체	300	12.7	8.0	2.3	1.3	0.3	80.3
2017년	-	44.4	33.3	33.3	11.1	-	-
기업규모							
소기업	208	10.1	9.6	2.4	1.0	0.5	80.8
중기업	92	18.5	4.3	2.2	2.2	0.0	79.3
업종형태							
제조업	225	16.0	8.9	1.8	1.8	0.4	77.3
건설업	15	6.7	6.7	13.3	0.0	0.0	73.3
서비스업	60	1.7	5.0	1.7	0.0	0.0	93.3
지역							
수도권	90	14.4	11.1	4.4	2.2	0.0	74.4
비수도권	210	11.9	6.7	1.4	1.0	0.5	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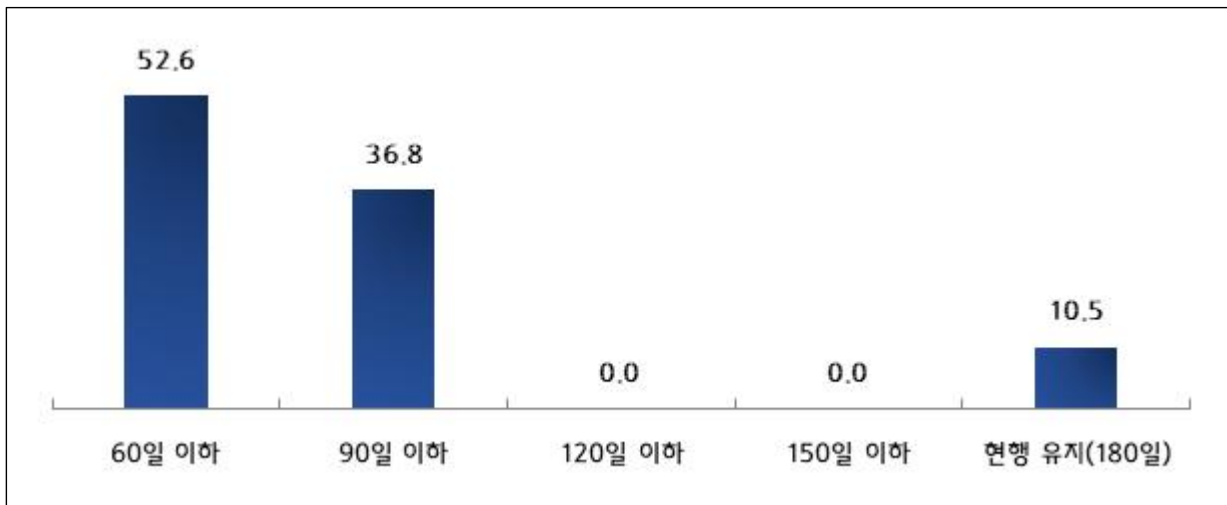
※ “지급경험 없음” 항목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2017년 자료와 직접적 비교 불가

## 12-1. 구매대금 지급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 ▷ 구매대금 결제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기업 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가 단축될 때 적절한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60일 이하”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일 이하” 36.8%, “현행 유지(180일)”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7〉 구매대금 지급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단위 :%)



- 기업규모별 “60일 이하” 응답비중은 소기업(61.9%)이 중기업(4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90일 이하”는 중기업(41.2%)이 소기업(33.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60일 이하” 응답비중은 제조업(55.6%)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90일 이하”는 서비스업(100.0%)과 건설업(100.0%)이 제조업(33.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60일 이하” 응답비중은 수도권(61.5%)이 비수도권(4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7〉 구매대금 지급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단위 : %)

구분	사례수	60일 이하	90일 이하	120일 이하	150일 이하	현행 유지(180일)
전체	38	52.6	36.8	0.0	0.0	10.5
기업						
소기업	21	61.9	33.3	0.0	0.0	4.8
규모						
중기업	17	41.2	41.2	0.0	0.0	17.6
업종						
제조업	36	55.6	33.3	0.0	0.0	11.1
형태						
건설업	1	0.0	100.0	0.0	0.0	0.0
서비스업	1	0.0	100.0	0.0	0.0	0.0
지역						
수도권	13	61.5	30.8	0.0	0.0	7.7
비수도권	25	48.0	40.0	0.0	0.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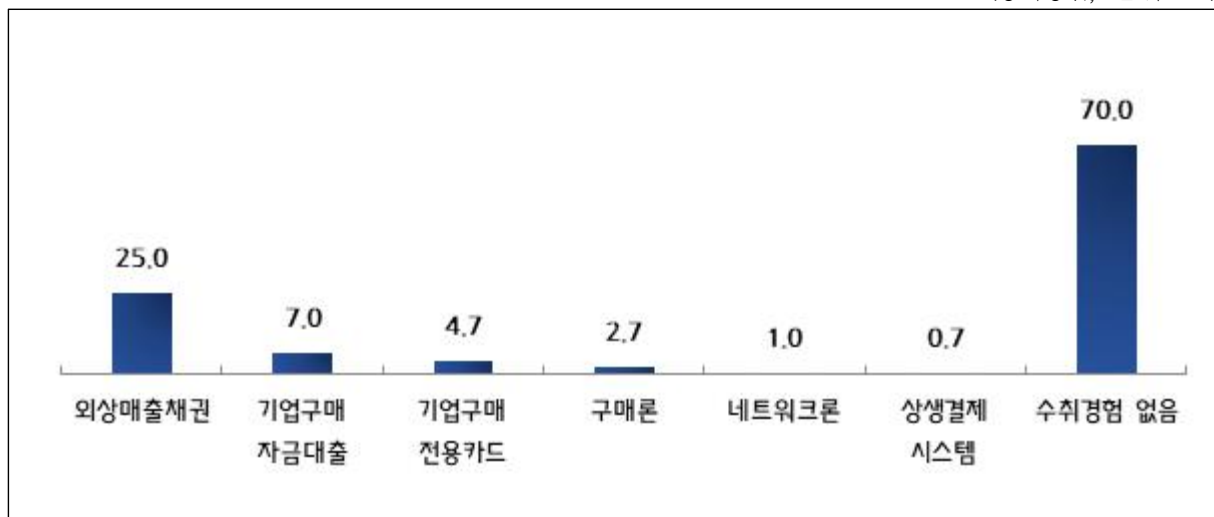
주) 응답자 Base : 외상매출채권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해본 응답자

### 13. 수취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 ▷ 수취경험이 있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는 “외상매출채권”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구매 자금대출” 7.0%, “기업구매 전용카드” 4.7%, “구매론” 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8〉 수취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중복응답, 단위 :%)



- 기업규모별 “외상매출채권”의 응답비중은 중기업(33.7%)이 소기업(21.2%)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외상매출채권”의 응답비중은 제조업(32.0%)이 서비스업(5.0%), 건설업(0.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구매 전용카드”의 경우 건설업(6.7%)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외상매출채권”의 응답비중은 수도권(28.9%)이 비수도권(2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8〉 수취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외상 매출채권	기업구매 자금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상생결제 시스템	수취경험 없음
전체	300	25.0	7.0	4.7	2.7	1.0	0.7	70.0
2017년	-	55.6	22.2	55.6	16.7	5.6	5.6	-
기업규모								
소기업	208	21.2	6.3	3.4	1.9	0.5	0.5	73.1
중기업	92	33.7	8.7	7.6	4.3	2.2	1.1	63.0
업종형태								
제조업	225	32.0	8.9	5.3	3.6	1.3	0.9	62.2
건설업	15	0.0	0.0	6.7	0.0	0.0	0.0	93.3
서비스업	60	5.0	1.7	1.7	0.0	0.0	0.0	93.3
지역								
수도권	90	28.9	6.7	5.6	5.6	1.1	1.1	64.4
비수도권	210	23.3	7.1	4.3	1.4	1.0	0.5	72.4

※ “수취경험 없음”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2017년 자료와 직접적 비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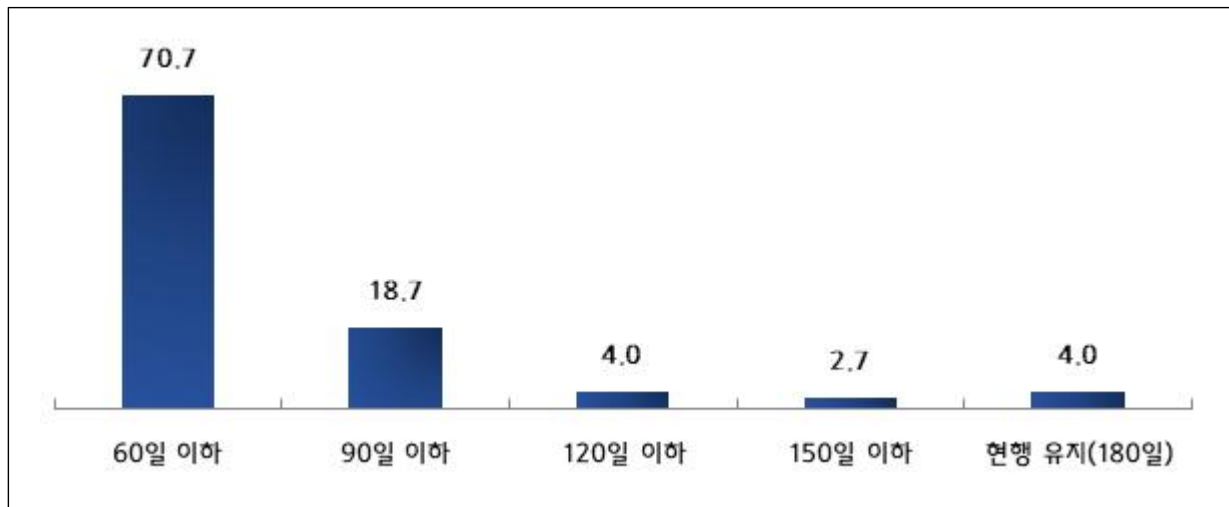


### 13-1. 판매대금 수취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 ▷ 판매대금 결제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기업 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가 단축될 때 적절한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60일 이하”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일 이하” 18.7%, “120일 이하” 4.0%, “150일 이하” 2.7%, “현행 유지(180일)” 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9〉 판매대금 수취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단위 :%)



- 기업규모별 “60일 이하” 응답비중은 소기업(75.0%)이 중기업(6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90일 이하”는 중기업(22.6%)이 소기업(15.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60일 이하” 응답비중은 제조업(70.8%)이 서비스업(66.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유지(180일)”은 서비스업(33.3%)이 제조업(2.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60일 이하” 응답비중은 수도권(76.9%)이 비수도권(6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9〉 판매대금 수취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단위 : %)

구 분	사례수	60일 이하	90일 이하	120일 이하	150일 이하	현행 유지(180일)
전 체	75	70.7	18.7	4.0	2.7	4.0
기업						
소기업	44	75.0	15.9	2.3	2.3	4.5
규모						
중기업	31	64.5	22.6	6.5	3.2	3.2
업종						
제조업	72	70.8	19.4	4.2	2.8	2.8
형태						
서비스업	3	66.7	0.0	0.0	0.0	33.3
지역						
수도권	26	76.9	15.4	0.0	0.0	7.7
비수도권	49	67.3	20.4	6.1	4.1	2.0

주) 응답자 Base : 외상매출채권을 수취수단으로 이용해본 응답자

## 14-1. 판매대금 수취기일 및 결제기일

- ▷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기업의 평균 수취기일은 35.1일로 나타남. “현금성결제”의 평균 수취기일은 54.6일, 결제기일은 58.2일로 조사됨. “어음”의 경우 평균 수취기일 47.7일, 결제기일 69.3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현금” 수취기일로는 중기업(36.7일)이 소기업(34.4일)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현금성 결제수단” 수취기일은 소기업(55.3일)이 중기업(53.6일)보다 길게, 결제기일은 중기업(65.0일)이 소기업(54.1일)보다 길게 나타남, “어음” 수취기일은 중기업(52.0일)이 소기업(45.7일)보다 높게, 결제기일 또한 중기업(71.2일)이 소기업(68.5일)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로는 “현금” 수취기일은 건설업(39.0일)이 타업종에 비해 길게, “현금성 결제수단” 수취기일과 결제기일은 서비스업(각각 68.5일, 60.0일)이 길게 나타남 “어음”의 수취기일은 건설업(52.5일)이, 결제기일은 제조업(70.7일)이 길게 나타남

〈표 20〉 판매대금 수취기일 및 결제기일

(단위 : 일)

구 분	현금		현금성 결제수단			어음		
	사례수	수취기일	사례수	수취기일	결제기일	사례수	수취기일	결제기일
전 체	297	35.1	90	54.6	58.2	144	47.7	69.3
2017년	-	40.2	-	37.3	46.2	-	52.4	84.6
기업 규모								
소기업	207	34.4	56	55.3	54.1	99	45.7	68.5
중기업	90	36.7	34	53.6	65.0	45	52.0	71.2
업종 형태								
제조업	222	37.6	85	54.3	58.5	133	48.4	70.7
건설업	15	39.0	1	30.0	30.0	4	52.5	60.0
서비스업	60	24.6	4	68.5	60.0	7	31.0	49.6
지역								
수도권	89	37.6	32	52.9	50.3	49	47.3	63.3
비수도권	208	34.0	58	55.6	62.6	95	47.8	72.5

주) 응답자 Base : 각 해당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응답자

## 14-2. 구매대금 지급기일 및 결제기일

- ▷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준 기업의 평균 지급기일은 34.7일로 나타남. “현금성결제”의 평균 지급기일은 53.2일, 결제기일은 57.7일로 조사됨. “어음”의 경우 평균 지급기일은 50.5일, 결제기일은 65.9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현금” 지급기일로는 중기업(35.0일)이 소기업(34.6일)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현금성 결제수단” 지급기일은 소기업(53.9일)이 중기업(51.6일)보다 길게, 결제기일 또한 소기업(60.6일)이 중기업(51.6일)보다 길게 나타남, “어음” 지급기일은 소기업(52.0일)이 중기업(47.6일)보다 높게, 결제기일 또한 소기업(68.9일)이 중기업(60.2일)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로는 “현금” 지급기일은 건설업(39.0일)이 타업종에 비해 길게, “현금성 결제수단” 지급기일은 서비스업(69.3일)이, 결제기일은 건설업(60.0일)이 길게 나타남. “어음”의 지급기일은 건설업(52.5일)이, 결제기일은 제조업(67.0일)이 길게 나타남

〈표 21〉 구매대금 지급기일 및 결제기일

(단위 : 일)

구 분	현금		현금성 결제수단			어음			
	사례수	지급기일	사례수	지급기일	결제기일	사례수	지급기일	결제기일	
전 체	297	34.7	59	53.2	57.7	80	50.5	65.9	
2017년	-	35.3	-	44.4	45.0	-	54.4	78.4	
기업 규모	소기업	207	34.6	40	53.9	60.6	53	52.0	68.9
	중기업	90	35.0	19	51.6	51.6	27	47.6	60.2
업종 형태	제조업	222	36.0	51	51.4	58.3	74	50.5	67.0
	건설업	15	39.0	4	60.0	60.0	4	52.5	56.3
	서비스업	60	29.0	4	69.3	46.8	2	45.0	45.0
지역	수도권	89	38.2	23	58.9	57.6	29	54.8	63.1
	비수도권	208	33.3	36	49.5	57.7	51	48.0	67.5

주) 응답자 Base : 각 해당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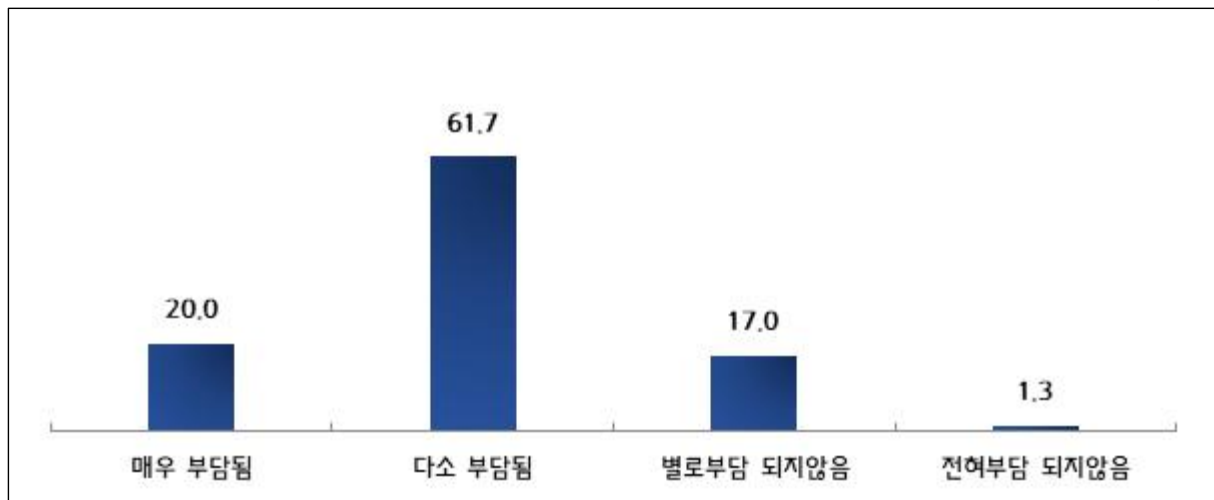
## part4. 기준금리 인상

### 15. 기준금리 인상시 경영부담 정도

- ▷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될 때 기업경영에 부담되는 정도에 대해 “다소 부담됨”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부담됨”(20.0%), “별로 부담되지 않음”(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0〉 기준금리 인상시 경영부담 정도

(단위 :%)



- 기업규모별 “다소 부담됨” 응답비중은 중기업(64.1%)이 소기업(6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부담됨”의 경우 소기업(20.2%)이 중기업(19.6%)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다소 부담됨” 응답비중은 제조업(64.4%)이 서비스업(56.7%), 건설업(40.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부담됨”의 경우 제조업(24.0%)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다소 부담됨” 응답비중은 수도권(66.7%)이 비수도권(5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 기준금리 인상시 경영부담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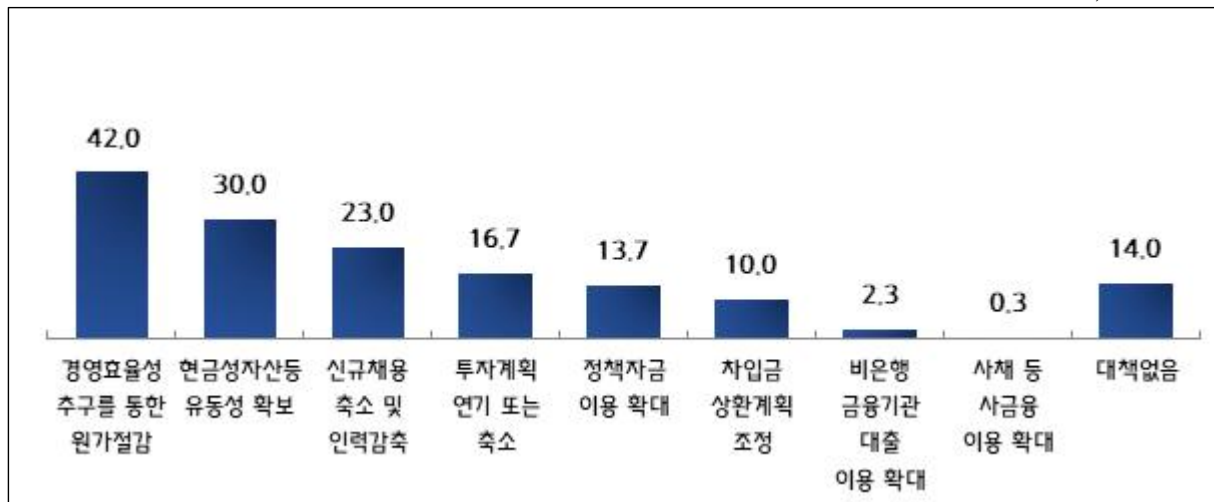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매우 부담됨	다소 부담됨	별로부담 되지않음	전혀부담 되지않음
전 체	300	20.0	61.7	17.0	1.3
기업 규모	소기업 208	20.2	60.6	17.8	1.4
	중기업 92	19.6	64.1	15.2	1.1
업종 형태	제조업 225	24.0	64.4	11.1	0.4
	건설업 15	6.7	40.0	53.3	0.0
	서비스업 60	8.3	56.7	30.0	5.0
지역	수도권 90	14.4	66.7	18.9	0.0
	비수도권 210	22.4	59.5	16.2	1.9

## 16.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경영 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금성 자산 등 유동성 확보”가 30.0%, “신규채용 축소 및 인력감축” 23.0%, “투자계획 연기 또는 축소”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중복응답, 단위 :%)



- 기업규모별 “경영 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 응답비중은 중기업(42.4%)이 중소기업(41.8%)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경영 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 응답비중은 제조업(48.4%)이 건설업(46.7%), 서비스업(16.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경영 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 응답비중은 비수도권(43.8%)이 수도권(3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영 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	현금성 자산 등 유동성 확보	신규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	투자 계획 연기 또는 축소
전 체	300	42.0	30.0	23.0	16.7
기업 규모	소기업 208	41.8	31.3	22.6	16.8
	중기업 92	42.4	27.2	23.9	16.3
업종 형태	제조업 225	48.4	31.6	22.7	20.0
	건설업 15	46.7	46.7	0.0	13.3
	서비스업 60	16.7	20.0	30.0	5.0
지역	수도권 90	37.8	31.1	10.0	15.6
	비수도권 210	43.8	29.5	28.6	17.1

구 분	정책 자금 이용확대	차입금 상환계획 조정	비은행 금융 기관 대출 이용확대	사채 등 사금융 이용확대	대책 없음
전 체	13.7	10.0	2.3	0.3	14.0
기업 규모	소기업 13.5	7.7	2.9	0.5	15.4
	중기업 14.1	15.2	1.1	0.0	10.9
업종 형태	제조업 9.8	10.7	2.2	0.4	12.4
	건설업 0.0	0.0	0.0	0.0	20.0
	서비스업 31.7	10.0	3.3	0.0	18.3
지역	수도권 11.1	10.0	2.2	0.0	20.0
	비수도권 14.8	10.0	2.4	0.5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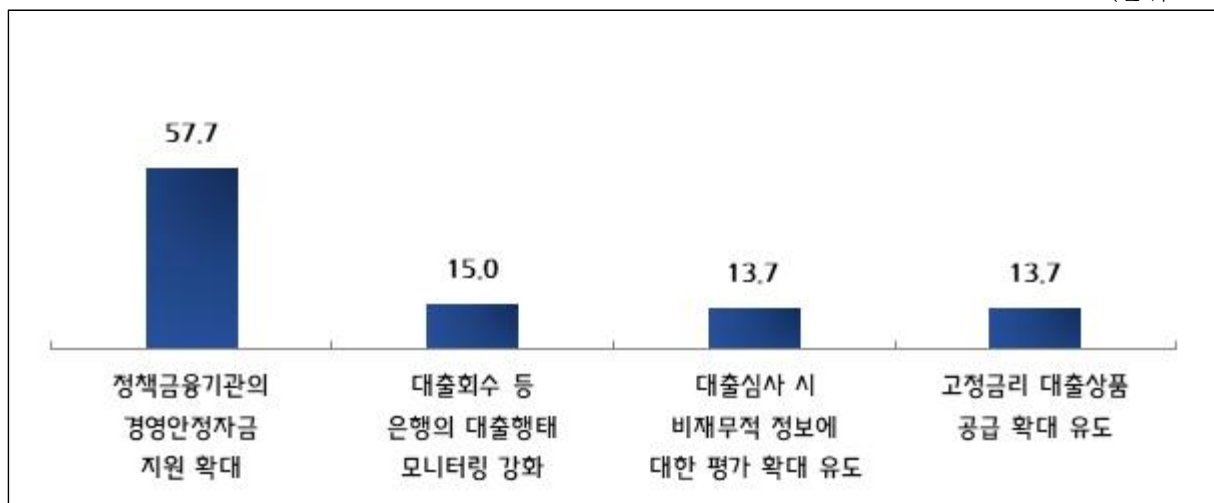


## 17. 기준금리 인상 대비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

- ▷ 기준금리 인상 대비하여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라는 의견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회수 등 은행의 대출형태 모니터링 강화” 15.0%, “대출심사 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평가 확대 유도” 13.7%,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 유도”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기준금리 인상 대비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

(단위 :%)



- 기업규모별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응답비중은 중기업(65.2%)이 소기업(54.3%)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응답비중은 서비스업(66.7%)이 제조업(56.0%), 건설업(46.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응답비중은 수도권(61.1%)이 비수도권(5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 기준금리 인상 대비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책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 자금 지원확대	대출회수 등 은행의 대출행태 모니터링 강화	대출심사 시 비 재무적 정보에 대한 평가확대 유도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 유도	
전 체	300	57.7	15.0	13.7	13.7	
기업	소기업	208	54.3	14.9	15.9	14.9
규모	중기업	92	65.2	15.2	8.7	10.9
업종 형태	제조업	225	56.0	15.1	14.2	14.7
	건설업	15	46.7	13.3	6.7	33.3
	서비스업	60	66.7	15.0	13.3	5.0
지역	수도권	90	61.1	6.7	20.0	12.2
	비수도권	210	56.2	18.6	11.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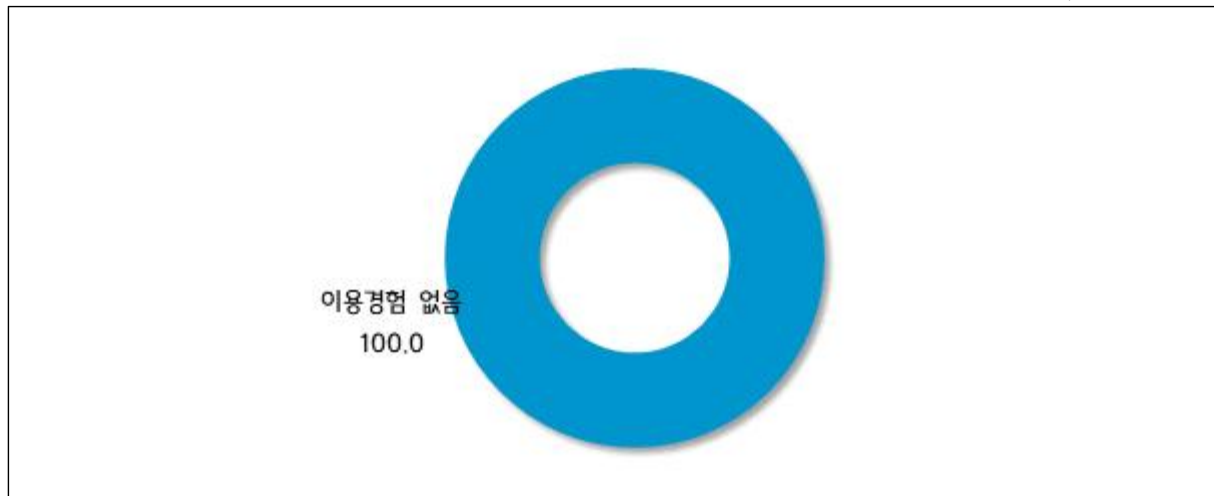
## part5. 관계형금융

### 18. 관계형금융 이용 여부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 ▷ 금년 대출시 관계형금융 이용경험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이용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여 관계형 금융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관계형금융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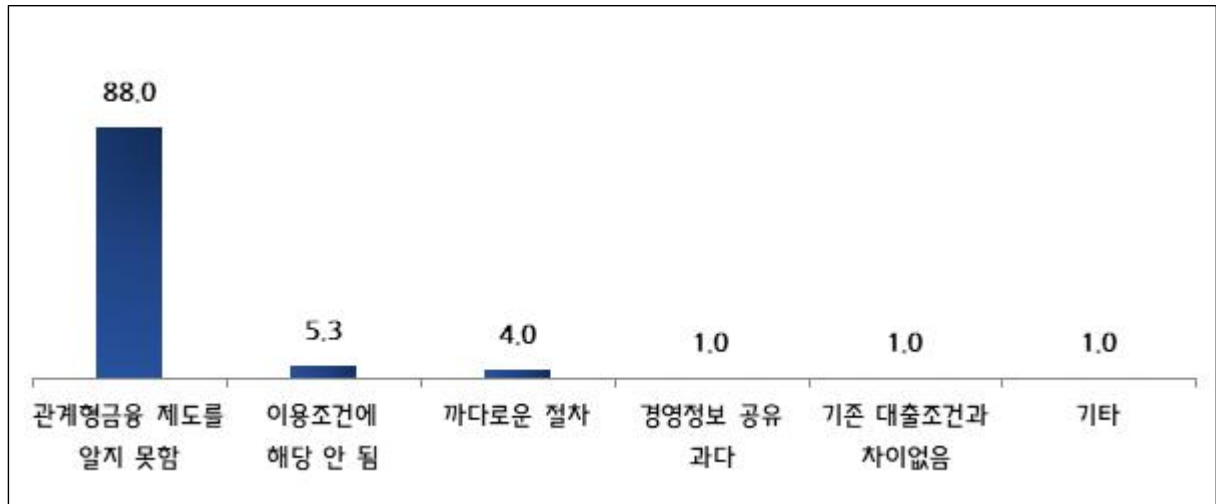
(중복응답, 단위 :%)



- ▷ 관계형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계형금융 제도를 알지 못함”이 88.0%로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조건에 해당 안됨” 5.3%, “까다로운 절차” 4.0%, “경영정보 공유 과다” 1.0%, “기존 대출조건과 차이없음” 1.0%, “기타”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관계형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복응답, 단위 : %)



〈표 25〉 관계형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관계형금융 제도를 알지 못함	이용조건에 해당 안 됨	까다로운 절차	경영정보 공유 과다	기존 대출조건과 차이없음	기타
전체	300	88.0	5.3	4.0	1.0	1.0	1.0
기업 규모							
소기업	208	87.5	4.8	4.3	0.5	1.4	1.4
중기업	92	89.1	6.5	3.3	2.2	0.0	0.0
업종 형태							
제조업	225	84.9	7.1	4.9	1.3	0.9	1.3
건설업	15	93.3	0.0	0.0	0.0	6.7	0.0
서비스업	60	98.3	0.0	1.7	0.0	0.0	0.0
지역							
수도권	90	87.8	5.6	5.6	0.0	0.0	1.1
비수도권	210	88.1	5.2	3.3	1.4	1.4	1.0

주)응답자 Base : 관계형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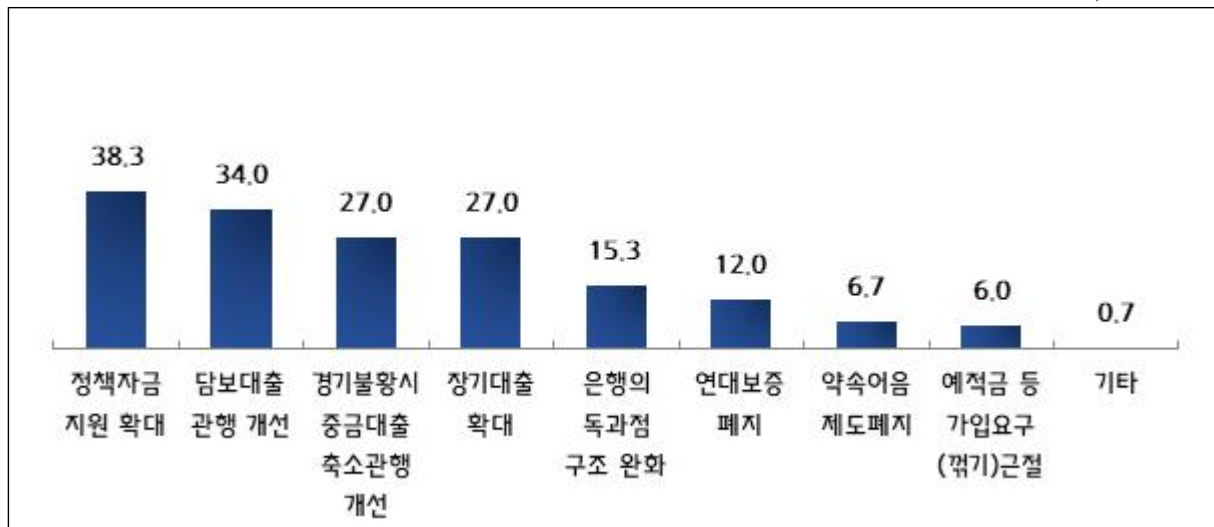
## part6. 기타 금융과제 건의

### 19. 기타 금융과제 건의

- ▷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보대출 관행 개선” 34.0%, “경기 불황 시 중금 대출 축소 관행 개선” 27.0%, “장기대출 확대” 27.0%, “은행의 독과점 구조 완화”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기타 금융과제 건의

(중복응답, 단위 :%)



- 기업규모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응답비중은 중기업(39.1%)이 소기업(38.0%)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형태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응답비중은 서비스업(53.3%)이 제조업(34.7%), 건설업(33.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응답비중은 비수도권(39.0%)이 수도권(3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 기타 금융과제 건의

(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담보 대출 관행 개선	경기 불황 시 중금 대출 축소 관행개선	장기 대출 확대
전 체	300	38.3	34.0	27.0	27.0
기업 규모	소기업 208	38.0	30.8	26.9	23.6
	중기업 92	39.1	41.3	27.2	34.8
업종 형태	제조업 225	34.7	32.0	31.1	28.4
	건설업 15	33.3	6.7	13.3	13.3
	서비스업 60	53.3	48.3	15.0	25.0
지역	수도권 90	36.7	26.7	20.0	28.9
	비수도권 210	39.0	37.1	30.0	26.2

구 분	은행의 독과점 구조 완화	연대 보증 폐지	약속 어음 제도 폐지	예적금 등 가입요구 (꺾기)근절	기타
전 체	15.3	12.0	6.7	6.0	0.7
기업 규모	소기업 17.8	12.5	7.7	5.8	1.0
	중기업 9.8	10.9	4.3	6.5	0.0
업종 형태	제조업 16.4	13.8	5.8	5.3	0.4
	건설업 40.0	26.7	26.7	20.0	0.0
	서비스업 5.0	1.7	5.0	5.0	1.7
지역	수도권 16.7	21.1	6.7	6.7	1.1
	비수도권 14.8	8.1	6.7	5.7	0.5

## IV 통계표

## 1. 올해(18.1.1.~10.31.) 회사의 자금사정

(단위 : %)

구분	매우원활	다소원활	보통	곤란	매우곤란
전체	0.3	21.7	55.7	20.0	2.3
기업					
소기업	0.5	19.2	53.8	24.0	2.4
규모					
중기업	0.0	27.2	59.8	10.9	2.2
업종					
제조업	0.0	18.2	58.2	20.4	3.1
형태					
건설업	0.0	26.7	53.3	20.0	0.0
서비스업	1.7	33.3	46.7	18.3	0.0
지역					
수도권	0.0	30.0	44.4	25.6	0.0
비수도권	0.5	18.1	60.5	17.6	3.3
※ 연도					
2007년	0.5	5.4	19.0	47.3	27.8
2008년	1.6	16.2	39.0	33.0	10.2
2009년	2.2	14.3	42.5	33.6	7.5
2011년	1.7	15.7	49.7	26.7	6.3
2012년	1.0	14.0	47.3	29.7	8.0
2013년	2.0	12.7	55.3	23.0	7.0
2014년	0.7	11.3	64.0	22.0	2.0
2015년	1.3	12.5	55.1	25.7	5.3
2016년	1.3	16.0	50.1	31.3	1.3
2017년	1.3	18.7	55.0	22.3	2.7

## 1-1.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

(단위 : %)

구분	판매 부진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판매대금 회수지연	납품대금 가격동결 또는인하	거래처 구조조정 또는부도	설비기술 투자확대	금융기관 자금조달 곤란	기타
전체	67.2	40.3	38.8	19.4	7.5	7.5	1.5	1.5	3.0
기업									
소기업	65.5	41.8	36.4	23.6	7.3	9.1	0.0	1.8	1.8
규모									
중기업	75.0	33.3	50.0	0.0	8.3	0.0	8.3	0.0	8.3
업종									
제조업	71.7	37.7	37.7	20.8	7.5	5.7	1.9	1.9	1.9
형태									
건설업	0.0	66.7	33.3	33.3	0.0	66.7	0.0	0.0	0.0
서비스업	63.6	45.5	45.5	9.1	9.1	0.0	0.0	0.0	9.1
지역									
수도권	65.2	56.5	26.1	17.4	8.7	8.7	4.3	0.0	0.0
비수도권	68.2	31.8	45.5	20.5	6.8	6.8	0.0	2.3	4.5
※ 연도									
2017년	62.7	54.7	17.3	30.7	-	4.0	1.3	6.7	4.0

※ 응답자 Base : 작년 동기 대비 올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응답자

## 2.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

(단위 : %)

구분	매우증가	다소증가	올해수준유지	다소감소	매우감소	
전체	0.3	8.3	72.3	18.0	1.0	
기업	0.5	8.7	69.7	20.2	1.0	
규모	0.0	7.6	78.3	13.0	1.1	
업종	0.4	9.3	71.6	17.8	0.9	
형태	0.0	20.0	53.3	26.7	0.0	
	0.0	1.7	80.0	16.7	1.7	
지역	0.0	8.9	71.1	20.0	0.0	
	0.5	8.1	72.9	17.1	1.4	
※ 연도	2007년	4.6	43.8	39.8	9.8	2.1
	2008년	9.5	40.0	24.8	18.6	7.1
	2009년	7.6	45.3	34.4	11.5	1.2
	2010년	5.4	48.7	37.7	7.1	1.2
	2011년	3.3	34.0	54.7	7.0	1.0
	2012년	1.7	25.3	57.0	14.0	2.0
	2013년	3.3	22.1	61.5	12.4	0.7
	2014년	0.3	9.7	78.3	11.0	0.7
	2015년	1.0	17.8	65.7	13.9	1.7
	2016년	1.3	25.0	55.0	18.0	0.7
	2017년	0.3	15.7	67.0	16.0	1.0

## 2-1.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설비투자	부채상환	현금결제 확대 (어음축소)	연구기술 개발	기타	
전체	38.5	38.5	26.9	7.7	7.7	0.0	3.8	
기업	42.1	47.4	15.8	10.5	10.5	0.0	5.3	
규모	28.6	14.3	57.1	0.0	0.0	0.0	0.0	
업종	36.4	45.5	31.8	9.1	0.0	0.0	4.5	
형태	33.3	0.0	0.0	0.0	66.7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지역	25.0	12.5	50.0	0.0	25.0	0.0	0.0	
	44.4	50.0	16.7	11.1	0.0	0.0	5.6	
※ 연도	2007년	23.7	28.3	33.1	8.6	2.6	3.7	-
	2008년	18.9	31.5	23.7	15.3	3.3	7.3	-
	2009년	15.6	27.1	32.7	13.4	1.4	9.7	-
	2010년	16.9	32.5	31.7	12.6	0.5	5.7	-
	2011년	10.6	35.5	30.2	14.3	3.0	5.4	1.0
	2012년	13.6	34.7	29.7	11.0	-	11.0	-
	2013년	13.2	29.8	25.6	18.2	1.7	9.1	2.5
	2014년	3.3	30.0	50.0	10.0	0.0	6.7	0.0
	2015년	8.8	35.1	36.8	12.3	3.5	1.8	1.8
	2016년	6.3	20.3	46.8	5.1	2.5	19.0	0.0
	2017년	27.1	31.3	29.2	6.3	-	4.2	1.9

※ 응답자 Base : 금년 대비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가 증가한다는 응답자



## 3. 외부자금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전 체		31.0	69.0
기업 규모	소기업	32.2	67.8
	중기업	28.3	71.7
업종 형태	제조업	35.6	64.4
	건설업	13.3	86.7
	서비스업	18.3	81.7
지역	수도권	30.0	70.0
	비수도권	31.4	68.6
※ 연도	2015년	62.7	37.3
	2016년	88.0	12.0
	2017년	44.0	56.0

## 4. 필요 자금 대비 확보한 외부자금 정도

(단위 : %)

구 분		0~30%	31~50%	51~70%	71~90%	91% 이상
전 체		8.6	14.0	29.0	21.5	26.9
기업 규모	소기업	6.0	13.4	32.8	20.9	26.9
	중기업	15.4	15.4	19.2	23.1	26.9
업종 형태	제조업	5.0	12.5	26.3	25.0	31.3
	건설업	0.0	50.0	50.0	0.0	0.0
	서비스업	36.4	18.2	45.5	0.0	0.0
지역	수도권	11.1	11.1	40.7	22.2	14.8
	비수도권	7.6	15.2	24.2	21.2	31.8
※ 연도	2007년	11.4	9.5	19.1	29.5	30.5
	2008년	20.0	15.4	26.0	22.1	16.5
	2009년	15.5	13.9	24.1	24.1	22.5
	2010년	17.9	14.7	19.6	26.1	21.7
	2011년	7.2	9.5	23.1	31.2	29.0
	2012년	10.2	6.2	19.2	27.1	37.3
	2013년	6.8	11.1	18.4	29.9	33.8
	2014년	0.5	10.4	17.6	36.8	34.6
	2015년	11.9	10.6	16.8	24.4	36.3
	2016년	5.7	17.7	22.0	31.3	23.3
2017년	8.3	10.0	20.0	29.7	32.0	

※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 5. 작년(2017년) 대비 금년도(2018년) 외부자금조달 사정

(단위 : %)

구분	매우호전	다소호전	지난해와 비슷	다소악화	매우악화
전체	0.0	15.1	65.6	19.4	0.0
기업					
소기업	0.0	10.4	67.2	22.4	0.0
규모					
중기업	0.0	26.9	61.5	11.5	0.0
업종					
제조업	0.0	16.3	62.5	21.3	0.0
형태					
건설업	0.0	0.0	100.0	0.0	0.0
서비스업	0.0	9.1	81.8	9.1	0.0
지역					
수도권	0.0	18.5	74.1	7.4	0.0
비수도권	0.0	13.6	62.1	24.2	0.0

※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 6. 대출조건별 은행차입 대출금 비중

(단위 : %)

구분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예/적금 등 담보	연대보증	은행지급보증
전체	49.2	15.1	32.6	1.3	1.8	0.0
기업						
소기업	48.4	15.4	32.7	1.8	1.8	0.0
규모						
중기업	51.4	14.5	32.3	0.0	1.8	0.0
업종						
제조업	50.1	14.2	32.2	1.4	2.0	0.0
형태						
건설업	30.0	0.0	70.0	0.0	0.0	0.0
서비스업	43.8	25.0	31.3	0.0	0.0	0.0
지역						
수도권	41.7	20.9	33.0	4.3	0.0	0.0
비수도권	52.4	12.7	32.4	0.0	2.5	0.0
※ 연도						
2007년	36.3	19.7	38.2	3.2	1.5	1.1
2008년	44.3	26.7	13.8	6.9	4.0	4.3
2009년	40.1	32.0	15.9	6.0	2.5	3.4
2010년	44.7	25.3	16.3	5.9	3.8	3.9
2011년	35.6	18.5	25.5	7.8	8.4	4.2
2012년	34.9	23.2	21.4	5.9	6.9	7.8
2013년	37.1	17.5	22.5	6.5	8.2	8.2
2014년	31.6	30.5	19.8	9.9	4.4	3.8
2015년	46.0	16.6	22.4	5.6	6.8	2.7
2016년	44.6	17.2	25.1	5.9	5.3	1.7
2017년	41.2	19.3	35.2	2.4	1.0	0.8

주)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은행차입 대출금이 있는 응답자

## 7.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높은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족	과도한 서류제출요구	부동산 담보 부족	대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심사	예·적금, 보험등 가입요구	없음
전 체	26.9	21.8	12.8	7.7	7.7	1.3	46.2
기업							
소기업	23.2	19.6	14.3	8.9	8.9	1.8	48.2
규모							
중기업	36.4	27.3	9.1	4.5	4.5	0.0	40.9
업종							
제조업	26.1	21.7	11.6	5.8	5.8	0.0	47.8
형태							
건설업	100.0	100.0	0.0	0.0	0.0	0.0	0.0
서비스업	25.0	12.5	25.0	25.0	25.0	12.5	37.5
지역							
수도권	34.8	34.8	21.7	17.4	8.7	4.3	21.7
비수도권	23.6	16.4	9.1	3.6	7.3	0.0	56.4

\*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은행차입 대출금이 있는 응답자

## 8. 정책자금 신청 경험

(단위 : %)

구 분	있고, 지원받았음	있었으나, 지원못받음	없으나, 내년에신청할계획	없고, 내년에도계획없음
전 체	45.2	2.2	10.8	41.9
기업				
소기업	40.3	1.5	10.4	47.8
규모				
중기업	57.7	3.8	11.5	26.9
업종				
제조업	47.5	2.5	12.5	37.5
형태				
건설업	50.0	0.0	0.0	50.0
서비스업	27.3	0.0	0.0	72.7
지역				
수도권	40.7	3.7	7.4	48.1
비수도권	47.0	1.5	12.1	39.4
※ 연도				
2015년	23.4	3.3	7.3	66.0
2016년	11.3	1.3	20.3	67.0
2017년	11.3	0.7	6.7	77.7

\*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과도한 서류제출요구	필요금액에 비해 지원 한도부족	엄격한 지원 대상요건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심사	담보 및 보증요구	없음
전 체	36.4	20.5	20.5	9.1	2.3	34.1
기업	39.3	17.9	25.0	14.3	0.0	28.6
규모	31.3	25.0	12.5	0.0	6.3	43.8
업종	40.0	22.5	20.0	10.0	2.5	30.0
형태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지역	50.0	25.0	33.3	8.3	8.3	16.7
	31.3	18.8	15.6	9.4	0.0	40.6

※ 응답자 Base : 금년도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해본 응답자

10.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시행 찬성 여부

(단위 : %)

구 분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48.7	12.0	39.3
기업	53.8	11.5	34.6
규모	37.0	13.0	50.0
업종	52.4	12.0	35.6
형태	66.7	20.0	13.3
	30.0	10.0	60.0
지역	46.7	16.7	36.7
	49.5	10.0	40.5

11. 약속어음 폐지 부작용 최소화 방안

(단위 : %)

구 분	신용위축 해소 위한정책자금 공급	약속어음 발행액축소기업 세계혜택부여	매출채권보험 활성화위한정부 예산확대편성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대중견기업에 우선적약속어음 발행금지시행	기타
전 체	41.0	36.3	34.3	33.3	15.7	1.0
기업	41.8	36.5	31.7	33.7	17.3	1.4
규모	39.1	35.9	40.2	32.6	12.0	0.0
업종	39.1	41.3	37.3	31.1	15.1	1.3
형태	40.0	20.0	13.3	26.7	26.7	0.0
	48.3	21.7	28.3	43.3	15.0	0.0
지역	44.4	21.1	33.3	42.2	16.7	1.1
	39.5	42.9	34.8	29.5	15.2	1.0

## 12. 지급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단위 : %)

구분	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 자금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기타	지급경험 없음
전체	12.7	8.0	2.3	1.3	0.3	0.0	80.3
기업							
소기업	10.1	9.6	2.4	1.0	0.5	0.0	80.8
규모							
중기업	18.5	4.3	2.2	2.2	0.0	0.0	79.3
업종							
제조업	16.0	8.9	1.8	1.8	0.4	0.0	77.3
형태							
건설업	6.7	6.7	13.3	0.0	0.0	0.0	73.3
서비스업	1.7	5.0	1.7	0.0	0.0	0.0	93.3
지역							
수도권	14.4	11.1	4.4	2.2	0.0	0.0	74.4
비수도권	11.9	6.7	1.4	1.0	0.5	0.0	82.9
※ 연도							
2014년	10.8	64.9	21.6	0.0	-	2.7	-
2015년	30.7	48.0	13.3	5.3	-	2.7	-
2016년	31.4	61.4	22.9	5.7	-	0.0	-
2017년	44.4	33.3	33.3	11.1	-	0.0	-

※ 응답자 Base : 작년 동기 대비 올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응답자

※ 조사 항목 변경으로 2017년 이전과 비교시 주의 필요함

## 12-1. 구매대금 지급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단위 : %)

구분	60일 이하	90일 이하	120일 이하	150일 이하	현행 유지(180일)
전체	52.6	36.8	0.0	0.0	10.5
기업					
소기업	61.9	33.3	0.0	0.0	4.8
규모					
중기업	41.2	41.2	0.0	0.0	17.6
업종					
제조업	55.6	33.3	0.0	0.0	11.1
형태					
건설업	0.0	100.0	0.0	0.0	0.0
서비스업	0.0	100.0	0.0	0.0	0.0
지역					
수도권	61.5	30.8	0.0	0.0	7.7
비수도권	48.0	40.0	0.0	0.0	12.0

※ 응답자 Base : 외상매출채권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해본 응답자

## 13. 수취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

(단위 : %)

구분	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 자금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상생결제 시스템	수취경험 없음
전체	25.0	7.0	4.7	2.7	1.0	0.7	70.0
기업							
소기업	21.2	6.3	3.4	1.9	0.5	0.5	73.1
규모							
중기업	33.7	8.7	7.6	4.3	2.2	1.1	63.0
업종							
제조업	32.0	8.9	5.3	3.6	1.3	0.9	62.2
형태							
건설업	0.0	0.0	6.7	0.0	0.0	0.0	93.3
서비스업	5.0	1.7	1.7	0.0	0.0	0.0	93.3
지역							
수도권	28.9	6.7	5.6	5.6	1.1	1.1	64.4
비수도권	23.3	7.1	4.3	1.4	1.0	0.5	72.4
※ 연도	2017년	55.6	22.2	55.6	16.7	5.6	5.6

## 13-1. 판매대금 수취시 적절한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기한

(단위 : %)

구분	60일 이하	90일 이하	120일 이하	150일 이하	현행 유지(180일)
전체	70.7	18.7	4.0	2.7	4.0
기업					
소기업	75.0	15.9	2.3	2.3	4.5
규모					
중기업	64.5	22.6	6.5	3.2	3.2
업종					
제조업	70.8	19.4	4.2	2.8	2.8
형태					
서비스업	76.9	15.4	0.0	0.0	7.7
지역					
수도권	67.3	20.4	6.1	4.1	2.0
비수도권	87.5	12.5	0.0	0.0	0.0

※ 응답자 Base : 외상매출채권을 수취수단으로 이용해본 응답자

## 14-1. 판매대금 수취기일 및 결제기일

(단위 : 일)

구 분	현금-수취기일	현금성	현금성	어음-수취기일	어음-결제기일
		결제수단-수취기일	결제수단-결제기일		
전 체	35.1	54.6	58.2	47.7	69.3
기업	34.4	55.3	54.1	45.7	68.5
규모	36.7	53.6	65.0	52.0	71.2
업종 형태	제조업	37.6	54.3	48.4	70.7
	건설업	39.0	30.0	30.0	52.5
	서비스업	24.6	68.5	60.0	31.0
지역	수도권	37.6	52.9	47.3	63.3
	비수도권	34.0	55.6	62.6	47.8
※ 연도	2014년	-	34.8	49.2	39.7
	2015년	-	28.9	47.5	34.2
	2016년	-	26.7	46.2	38.9
	2017년	40.2	37.3	46.2	52.4

※ 응답자 Base : 각 해당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응답자

## 14-2. 구매대금 지급기일 및 결제기일

(단위 : 일)

구 분	현금-지급기일	현금성	현금성	어음-지급기일	어음-결제기일
		결제수단-지급기일	결제수단-결제기일		
전 체	34.7	53.2	57.7	50.5	65.9
기업	34.6	53.9	60.6	52.0	68.9
규모	35.0	51.6	51.6	47.6	60.2
업종 형태	제조업	36.0	51.4	50.5	67.0
	건설업	39.0	60.0	60.0	52.5
	서비스업	29.0	69.3	46.8	45.0
지역	수도권	38.2	58.9	54.8	63.1
	비수도권	33.3	49.5	57.7	48.0
※ 연도	2014년	-	36.9	39.1	74.8
	2015년	-	30.5	44.2	58.7
	2016년	-	37.6	46.6	42.1
	2017년	35.3	44.4	45.0	54.4

※ 응답자 Base : 각 해당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응답자

## 15. 기준금리 인상시 경영부담 정도

(단위 : %)

구 분	매우 부담됨	다소 부담됨	별로부담 되지않음	전혀부담 되지않음	
전 체	20.0	61.7	17.0	1.3	
기업	20.2	60.6	17.8	1.4	
규모	19.6	64.1	15.2	1.1	
업종 형태	제조업	24.0	64.4	11.1	0.4
	건설업	6.7	40.0	53.3	0.0
	서비스업	8.3	56.7	30.0	5.0
지역	수도권	14.4	66.7	18.9	0.0
	비수도권	22.4	59.5	16.2	1.9

## 16.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단위 : %)

구 분	경영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	현금성자산등 유동성확보	신규채용 축소및 인력감축	투자계획 연기또는 축소	정책자금 이용확대	
전 체	42.0	30.0	23.0	16.7	13.7	
기업	41.8	31.3	22.6	16.8	13.5	
규모	42.4	27.2	23.9	16.3	14.1	
업종 형태	제조업	48.4	31.6	22.7	20.0	9.8
	건설업	46.7	46.7	0.0	13.3	0.0
	서비스업	16.7	20.0	30.0	5.0	31.7
지역	수도권	37.8	31.1	10.0	15.6	11.1
	비수도권	43.8	29.5	28.6	17.1	14.8

구 분	차입금 상환계획 조정	비은행 금융기관대출 이용확대	사채 등 사금융 이용확대	대책없음	
전 체	10.0	2.3	0.3	14.0	
기업	7.7	2.9	0.5	15.4	
규모	15.2	1.1	0.0	10.9	
업종 형태	제조업	10.7	2.2	0.4	12.4
	건설업	0.0	0.0	0.0	20.0
	서비스업	10.0	3.3	0.0	18.3
지역	수도권	10.0	2.2	0.0	20.0
	비수도권	10.0	2.4	0.5	11.4



## 17. 기준금리 인상 대비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

(단위 : %)

구 분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대출회수 등 은행의대출행태 모니터링강화	대출심사 시 비재무적정보에 대한평가확대 유도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확대유도
전 체	57.7	15.0	13.7	13.7
기업				
소기업	54.3	14.9	15.9	14.9
규모				
중기업	65.2	15.2	8.7	10.9
업종				
제조업	56.0	15.1	14.2	14.7
형태				
건설업	46.7	13.3	6.7	33.3
서비스업	66.7	15.0	13.3	5.0
지역				
수도권	61.1	6.7	20.0	12.2
비수도권	56.2	18.6	11.0	14.3

## 18. 2018년 대출시, 관계형금융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

구 분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전 체	0.0	100.0
기업		
소기업	0.0	100.0
규모		
중기업	0.0	100.0
업종		
제조업	0.0	100.0
형태		
건설업	0.0	100.0
서비스업	0.0	100.0
지역		
수도권	0.0	100.0
비수도권	0.0	100.0

18-1. 올해(18.1.1.~10.31.) 회사의 자금사정

(단위 : %)

구 분	관계형금융 제도를 알지 못함	이용조건에 해당안됨	까다로운 절차	경영정보 공유 과다	기존 대출조건과 차이없음	기타	
전 체	88.0	5.3	4.0	1.0	1.0	1.0	
기업	87.5	4.8	4.3	0.5	1.4	1.4	
규모	89.1	6.5	3.3	2.2	0.0	0.0	
업종 형태	제조업	84.9	7.1	4.9	1.3	0.9	1.3
	건설업	93.3	0.0	0.0	0.0	6.7	0.0
	서비스업	98.3	0.0	1.7	0.0	0.0	0.0
지역	수도권	87.8	5.6	5.6	0.0	0.0	1.1
	비수도권	88.1	5.2	3.3	1.4	1.4	1.0

※ 응답자 Base : 관계형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19. 향후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

(단위 : %)

구 분	정책자금 지원확대	담보대출 관행개선	경기불황시 중금대출 축소관행개선	장기대출 확대	은행의 독과점 구조완화	
전 체	38.3	34.0	27.0	27.0	15.3	
기업	38.0	30.8	26.9	23.6	17.8	
규모	39.1	41.3	27.2	34.8	9.8	
업종 형태	제조업	34.7	32.0	31.1	28.4	16.4
	건설업	33.3	6.7	13.3	13.3	40.0
	서비스업	53.3	48.3	15.0	25.0	5.0
지역	수도권	36.7	26.7	20.0	28.9	16.7
	비수도권	39.0	37.1	30.0	26.2	14.8

구 분	연대보증 폐지	약속어음 제도폐지	예적금 등 가입요구 (꺼기)근절	기타	
전 체	12.0	6.7	6.0	0.7	
기업	12.5	7.7	5.8	1.0	
규모	10.9	4.3	6.5	0.0	
업종 형태	제조업	13.8	5.8	5.3	0.4
	건설업	26.7	26.7	20.0	0.0
	서비스업	1.7	5.0	5.0	1.7
지역	수도권	21.1	6.7	6.7	1.1
	비수도권	8.1	6.7	5.7	0.5

※ 조사 항목 변경으로 인해 2017년 이전 자료와 비교 불가

--	--	--	--

### 2018년 중소기업 자금 및 금융이용 실태조사

(조사 기준기간 : 2018. 1. 1. ~ 10. 31.)

※ 본 조사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금융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표자 또는 자금담당 임직원**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말씀드립니다.

- 조사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Tel : 02)2124-3116
- 조사 대행기관 : Tel : 00)0000-0000
- 설문 회신처 : 팩스 00)0000-0000 E-mail :

◇ **업체 현황** 해당 란에 기입하거나 V표 하여 주십시오.

업 체 명	대 표 자	지 역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종사자수	전화번호 ( ) -	Fax 번호	( )	-
업 종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서비스업	매 출 액	( )억 원 * '17년 결산기준		

### □ 최근 자금사정 및 자금수요 전망

1. 올해('18. 1. 1.~10. 31.) 귀사의 **자금 사정**은 어떠셨습니까? ( )

- ① 매우 원활      ② 원활      ③ 보통      ④ 곤란      ⑤ 매우 곤란

1-1. **(위 1의 ④,⑤응답자만)**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면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 , ) \* **2개까지** 응답 가능

- ① 판매 부진      ② 원·부자재 가격 상승      ③ 납품대금 가격 동결 또는 인하  
 ④ 인건비 상승      ⑤ 판매대금 회수 지연      ⑥ 설비·기술 투자 확대  
 ⑦ 금융기관 자금 조달 곤란      ⑧ 거래처 구조조정 또는 부도      ⑨ 기타( )

2. 올해 대비 귀사의 **내년도(2019년) 자금수요 전망**은 어떠합니까? ( )

- ① 매우 증가      ② 다소 증가      ③ 올해 수준 유지      ④ 다소 감소      ⑤ 매우 감소

2-1. **(위 2의 ①②응답자만)**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주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 ) \* **2개까지** 응답 가능

- ① 설비투자      ② 인건비 지급      ③ 원·부자재 구입      ④ 부채 상환  
 ⑤ 연구·기술개발      ⑥ 현금결제 확대(어음축소)      ⑦ 기타( )

### □ 외부자금 조달 (사내유보금이 아닌, 은행대출, 정책자금, 주식, 사채 등 기업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의미)

3. 귀사는 금년도에 **외부자금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예 (**4번으로**)      ② 아니오 (**10번으로**)

4. 금년에 귀사는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필요(희망)자금 대비 얼마만큼의 자금을 확보하셨습니까? ( )

- ① 0~30%      ② 31~50%      ③ 51~70%      ④ 71~90%      ⑤ 91% 이상

5. **2017년 대비 2018년** 귀사의 **외부자금조달 사정**은 어떠셨습니까? ( )

- ① 매우 호전      ② 다소 호전      ③ 지난해와 비슷      ④ 다소 악화      ⑤ 매우 악화

※ 은행 이용현황

6. 올해 은행에서 차입한 총 대출금을(금액기준, 100으로 간주) 대출조건별로 분류하면 각각의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기보·지역재단)	순수신용	예적금 등 담보	연대보증	은행지급보증	계
(      %)	(      %)	(      %)	(      %)	(      %)	(      %)	100.0%

7. 올해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귀사가 겪으셨던 애로는 무엇입니까? (      ) \* 해당사항 모두 응답 가능

- ① 부동산 담보 부족                      ② 대출한도 부족                      ③ 높은 대출금리  
 ④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⑥ 대출연장 기피  
 ⑦ 예·적금, 보험 등 가입요구(꺼기)    ⑧ 연대보증 요구                      ⑨ 기타 (      )                      ⑩ 없음

※ 정책자금 이용현황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신·기보 보증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8. 올해 귀사는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① 있고, 지원 받았음    ② 있었으나, 지원 못 받음    ③ 없으나, 내년에 신청할 계획    ④ 없고, 내년에도 계획 없음

9.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귀사가 겪으셨던 애로는 무엇입니까? (      ) \* 해당사항 모두 응답 가능

- ① 필요금액에 비해 지원 한도 부족    ②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③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④ 담보 및 보증 요구                      ⑤ 엄격한 지원 대상 요건              ⑥ 기타 (      )                      ⑧ 없음

□ 약속어음 및 현금성결제

※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관련 의견

※ 현 정부는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합동 T/F를 구성하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은 발행 감축(폐지) 및 대체수단 활성화 등을 통하여 2022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합니다.

10.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시행에 찬성하십니까? (      )

- ① 찬성                                      ② 반대                                      ③ 잘 모르겠음

11. 약속어음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골라주십시오. (      ) \* 2개까지 응답 가능

- ① 매출채권 팩토링 등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②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 확대 편성  
 ③ 신용위축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등 정책자금 공급    ④ 대·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약속어음 발행 금지 시행  
 ⑤ 약속어음 발행액 축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⑥ 기타(      )                      )

※ 구·판매대금 현금성결제\* 이용현황 및 관련 의견

\* 현금성결제 : 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상생결제 등

12. 귀사가 구매대금 결제시 지급한 경험이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은 무엇입니까? (      ) \* 해당사항 모두 응답 가능

- ① 기업구매전용카드                      ② 기업구매자금대출                      ③ 외상매출채권                      ④ 구매론  
 ⑤ 네트워크론                              ⑥ 상생결제시스템                      ⑦ 기타(      )                      )                      ⑧ 지급경험 없음

12-1. (위 12에서 ③외상매출채권의 응답자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가 단축될 경우 귀사는 어느 수준까지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60일 이하                      ② 90일 이하                      ③ 120일 이하                      ④ 150일 이하                      ⑤ 현행 유지(180일)

※ (참고) 전자어음의 경우, 현행 만기는 6개월이며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 5월까지 3개월로 축소될 예정에 있음

13. 귀사가 판매대금 결제시 수취한 경험이 있는 현금성결제수단은 무엇입니까? ( ) \* 해당사항 모두 응답 가능

- ① 기업구매전용카드                      ② 기업구매자금대출                      ③ 외상매출채권                      ④ 구매론  
 ⑤ 네트워크론                      ⑥ 상생결제시스템                      ⑦ 기타( )                      ⑧ 수취경험 없음

13-1. (위 13에서 ③외상매출채권의 응답자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가 단축될 경우 귀사는 어느 수준까지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60일 이하                      ② 90일 이하                      ③ 120일 이하                      ④ 150일 이하                      ⑤ 현행 유지(180일)

14. (해당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응답자만) 아래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각각의 평균 수취·지급기일과 결제기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금(A)	현금성 결제수단(B)		어음(C)	
	수취기일	수취기일	결제기일	수취기일	결제기일
판매대금 수취	( )일	( )일	( )일	( )일	( )일
구매대금 지급	지급기일 ( )일	지급기일 ( )일	결제기일 ( )일	지급기일 ( )일	결제기일 ( )일

※ 수취기일: 제품(서비스) 판매 후 현금, 현금성결제, 어음을 받기까지 소요기간

※ 결제기일: 현금성결제, 어음 수취 후 만기일까지 소요기간

□ 기준금리 인상

※ 지난 '18. 9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미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여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p로 확대(미국: 2.00~2.25% 한국: 1.50%)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5. 한국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귀사의 기업경영에 어느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다소 부담된다                      ③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④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6. 한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귀사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 \* 해당사항 모두 응답 가능

- ① 경영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                      ② 투자계획 연기 또는 축소                      ③ 신규채용 축소 및 인력감축  
 ④ 차입금 상환계획 조정                      ⑤ 현금성자산 등 유동성 확보                      ⑥ 정책자금 이용 확대  
 ⑦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이용 확대                      ⑧ 사채(私債) 등 사금융 이용 확대                      ⑨ 대책없음

17. 한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무엇입니까? ( )

- ① 대출회수 등 은행의 대출행태 모니터링 강화                      ②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③ 대출심사 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평가 확대 유도                      ④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 유도

**□ 관계형금융**

※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비재무 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장기대출(3년 이상)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자의 경영의지, 업계 평판, 거래신뢰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18. 올해 대출 시, 관계형금융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① 예 (☞18-1번으로)
- ② 아니오 (☞18-2번으로)

18-1. (위 18의 ①응답자만) 관계형금융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1-1. (위 18-1의 ①,②응답자만) 관계형금융의 어떠한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담보·신용도보다 사업전망으로 평가    ② 장기자금 활용    ③ 컨설팅 제공    ④ 기타( )

18-1-2. (위 18-1의 ③,④,⑤응답자만) 관계형금융의 어떠한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해당사항 모두 응답 가능

- ① 기존 대출과 차이점 없음    ② 경영정보 공유 과다    ③ 복잡한 절차    ④ 대출한도 부족
- ⑤ 높은 금리    ⑥ 기타( )

18-2. (위 18의 ②응답자만) 관계형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이용조건에 해당 안 됨    ② 관계형금융 제도를 알지 못함    ③ 경영정보 공유 과다
- ④ 기존 대출조건과 차이없음    ⑤ 까다로운 절차    ⑥ 기타( )

**□ 기타 금융과제 건의**

19.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는 무엇입니까? ( )

\* 2개까지 응답 가능

- ① 담보대출 관행 개선      ②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③ 경기불황시 中企대출 축소관행 개선
- ④ 장기대출 확대      ⑤ 약속어음제도 폐지      ⑥ 은행의 독과점 구조 완화
- ⑦ 예·적금 등 가입요구(꺼기) 근절    ⑧ 연대보증 폐지      ⑨ 기타( )

20.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및 금융이용 애로,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별지 사용 가능)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성명		직위	
--------	--	----	--